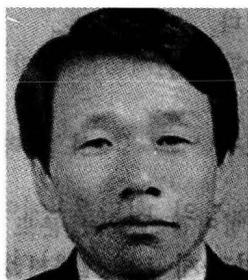


# 麟蹄文化

'91 / 第六輯



社團 麟蹄文化院  
法人



## 전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명제요 애항하는 마음이다.

인제문화원 원장 오 정 진

우리 문화의 뿌리는 단군 사상에 연유되어 있는 “敬天愛人” “弘益人間” “在世理化”에 바탕을 두고 맥을 이어 왔으며 또한 우리 겨레가 배달 민족으로 반만년을 이어온 생명력을 곧 우리 민족의 우수한 자질과 독특한 문화역량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의 뿌리가 견고히 정착 되어야만 그 나라의 참다운 문화가 이루어 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문화원에서는 내고장 특성에 맞는 주체성있는 전통 문화를 찾아 정착시키고 후대에 전승시키는 것이 우리의 명제요 애항하는 마음이라 깊이 생각하면서 향토문화 창달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토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문화 사랑방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바라며 내고장 문화 역량 계발에 한 부분으로 몫을 다하는 “인제문화”지 발간을 위하여 더 한층 관심을 모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본지를 발간하는데 귀한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편집을 위해 애써주신 편집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 원 고 모 집 □

인제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인제문화는 군민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으로 꾸며지며 순수한 향토문화지입니다.

군민여러분과 출향 인사님들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어오니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어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민속, 민요, 전설, 문화재, 유적에 관한 원고
- ◎ 충효사상 및 청소년 선도에 대한 고견
- ◎ 향토문화 발전에 관한 제언
- ◎ 시, 수필, 콩트, 단편소설, 만화등

■ 보내주실곳 : 인제문화원 (☎ 461-6678)

# 麟蹄文化



사단법인 인제문화원

# 孝

忠孝當行人之大本而必守孝忠  
善事父母天經地義

順於道而不違於倫理謂孝也  
亦對敬靜而風不止子欲養而親不待

西元一九五九年九月十五  
於美之康寧 未園



# 德

正道善行 四時旺氣  
欲以之德於天下者先治其國  
德字十四方象人一心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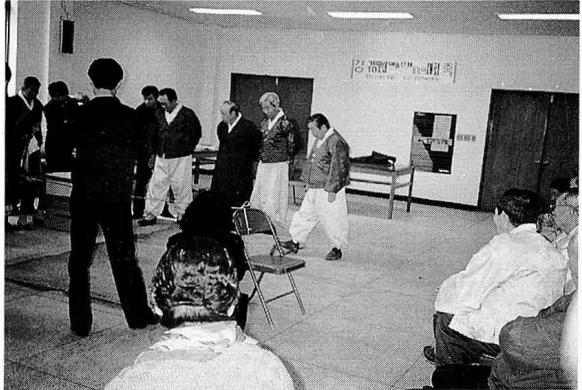
未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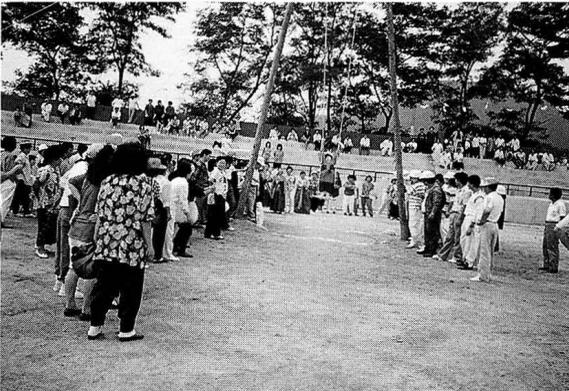
'91 문화사업화보



←'91년도 제7차 정기총회  
• 일시 : 91. 2. 5  
• 장소 : 인제문화관



구정맞이 옷놀이대회 →  
• 일시 : 91. 1. 5  
• 장소 : 인제문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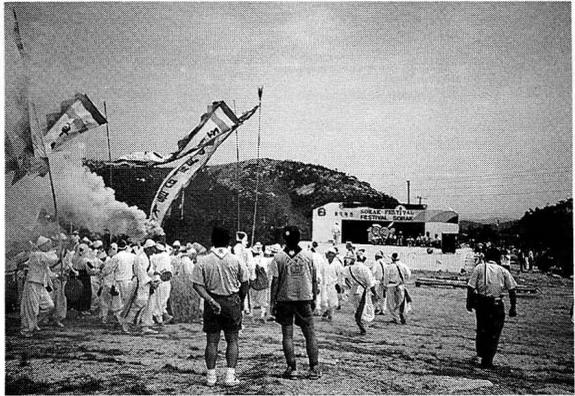
←제2회 단오절행사(그네)  
• 일시 : 91. 6. 16  
• 장소 : 인제종합운동장

## '91 문화사업 화보



### ← 서예교실운영

- 기간 : 년중계속
- 장소 : 인제문화원



### 잼버리대회장민속놀이 행사참여 →

- 일시 : 91. 8. 12
- 장소 : 고성군



### ← 향토사료전시실 운영

- 기간 : 년중계속
- 장소 : 인제문화관

## '91 문화사업화보



### ← 사진전시회

- 일시 : 91. 9. 8~10(3일간)
- 장소 : 인제문화관  
(함강문화제 축제 예술행사)



### 서예전시회 →

- 일시 : 91. 9. 8  
~10(3일간)
- 장소 : 인제문화관  
(함강문화제 축제 예술행사)



### ← 수석전시회

- 일시 : 91. 9. 8~10(3일간)
- 장소 : 인제문화관  
(함강문화제 축제 예술행사)

## '91 문화사업화보



← 미술사생실기대회  
 • 일시 : 91.9.8  
 • 장소 : 인제읍 충혼탑  
 (함강문화제 축제 예술행사)



박인환시인추모 백일장→  
 • 일시 : 91.9.8  
 • 장소 : 아미산 공원  
 (함강문화제 축제 예술행사)



← 민속예술발굴(경연대회)  
 • 일시 : 91.9.25~26(2일간)  
 • 장소 : 원주시  
 • 소재 : 인제 군량동 채독  
 만들기

'91 문화사업 화보



← 문화상및 효행상 시상  
 • 일시 : 91. 10. 20  
 • 장소 : 인제문화관



문화강좌 →  
 • 일시 : 91. 10. 20  
 • 장소 : 인제읍사무소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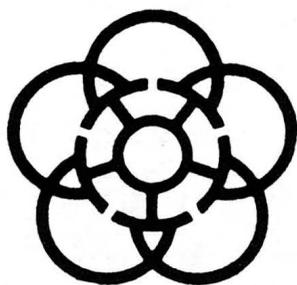


← 향토문화유적지 순례  
 • 일시 : 91. 10. 24  
 • 장소 : 내설악內 유적지



# 麟蹄文化誌

第6號



麟蹄文化院

# 目 次

麟蹄文化

第六輯 / 1991

□ 發刊辭 .....	오정진/3
'91문화사업화보 .....	/7

## 문화원 소식

성씨에 대한 고찰 .....	최병헌/18
군의회와 기능 .....	편집실/28
효행 .....	임광준/31
가례·지방쓰는 법 .....	이병준/38

## 향토를 빛낸 사람들

제5회 향토문화상 수상자 .....	/56
제8회 효행상 수상자 .....	/58

## 소 감

문화 업무를 맡아보면서 느낀 소감 .....	최동선/60
--------------------------	--------

## 제 언

合江文化祭에 대한 小考 .....	이만철/64
--------------------	--------

#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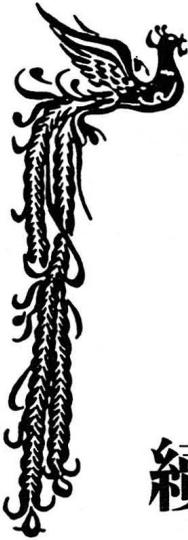
## 향 토 문 예

詩 인 등 단	詩 音樂 .....	최병헌/73
	아내의 마음 .....	/74
	交感 .....	/75
	離別뒤에 남는 것 .....	/76
	콩밭김매기 .....	/77
	이야기가 그리운날 .....	/78
	눈내리는 날 .....	/79
	가슴에 이는 바람 .....	/80
	星夜 .....	/81
詩 광야 .....	오천석/83	
나그네 .....	/84	
꿈·농부 .....	/85	
우리사랑하는 딸 지애에게 .....	박주화/89	
산과 더불어 .....	이연주/93	
산문 할머니의 교훈 .....	이정훈/96	
살기좋은 우리고장 .....	김연정/99	

### 출향인사 동정

재경 인재군민회 주소록 .....	김원철/102
<input type="checkbox"/> '91 인재문화원 사업일지 .....	/117
<input type="checkbox"/> '92 문화사업 계획 .....	/118
<input type="checkbox"/> 인재문화원 임직원 .....	/120
<input type="checkbox"/> 인재문화원 회원명단 .....	/120
<input type="checkbox"/> 편집후기 .....	/121

# 祝



# 續

# 刊

향토극단 은 술피단장  
 內麟文學同人會長  
 내설악사진동우회장  
 솜다리합창단장  
 석이미술동우회장  
 향토민속보존회장  
 雪松書藝同友會長  
 내설악수석동우회장

李	相	珏
한	성	국
전	영	환
최	종	숙
정	규	련
박	해	순
金	憲	來
오	정	진

# 문 화 원 소 식

## 문화가족 운영안내

문화가족 운동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 문화적인 협력을 불어넣어 우리의 일상생활을 멋있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소집단 문화활동입니다.

문화가족은 이웃과 더불어 문화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나 동호인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활동계획을 세우고 같이 추진해 나가는 모임입니다. 문화가족은 10명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끼리 호선한 한 사람이 대표자 조직의 유기적 활동을 맡고 각 회원은 매월 윤번제로 좌장이 되어 주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의 운영을 주관합니다.

문화가족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정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문화원으로 보내주십시오. 문화원으로 하여금 문화부에서는 귀하를 문화가족으로 모시는 확인서를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의 문화가족 활동을 지원해 드리게 됩니다.

○ 문의처 : 인제문화원 사무국 전화 461-6678

### • 문화가족 명단과 구성

명 칭	대표자성명	구성인원	비고
극 단 안 살 피 문 화 가 족	이상각	16	
내 린 문 학 동 인 회 문 화 가 족	최병현	18	
내 설 악 사 진 동 우 회 문 화 가 족	오정진	10	
석 이 미 술 동 우 회 문 화 가 족	정규련	15	
향 토 민 속 보 존 회 문 화 가 족	박해순	20	
설 송 서 예 동 우 회 문 화 가 족	김헌래	18	



## 姓氏에 對한 考察

인제문화원 명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최 병 현

### 1. 姓의 淵源

姓은 혈족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붙여진 것이다.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일컬어 원시사회를 씨족 사회라고 하는 것을 보면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조상이 같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아 왔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조상을 같이 하고 혈연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루며 살아오는 과정에서 수개의 씨족집단이 나타나게 되었고, 씨족집단은 다시 부족사회를 이루게 되고, 더 발전하여서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각 씨족은 다른 씨족과 구별하기 위하여 어떤 상징적인 명칭을 가졌을 것이고, 그 뒤에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상징적인 명칭을 姓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동양에 있어서는 한자를 사용한 중국이 처음으로 姓을 사용하였을 것이고, 중국과 제일 먼저 교류한 나라가 그 영향을 받아 姓을 사용하였을 것임이 틀림없다.

### 2. 우리나라 姓의 由來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모두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국문화를 수입한 뒤에 사용하였음이 틀림없다고 본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등 우리나라 옛 사적에 의하면 고구려는 시조 주몽이 건국하여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기 때문에 高氏라 하고, 주몽은 그의 신하들에게 克씨, 仲室氏, 小室氏의 성을 사성하였다 하고, 백제는

시조 온조가 부여에서 나왔다 하여 扶餘氏라 하였다 하며, 신라는 朴, 昔, 金 3성의 전설이 있고, 유리왕 때에 6部(村)에 사성하여 梁部에 李氏, 沙梁部에 崔氏, 漸梁部에 孫氏, 本彼部에 鄭氏, 潢祗部에 裴氏, 習比部에 설씨 姓을 주었다 하며,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도 황금알에서 탄생하였다 하여 金氏라 했다는 전설이 기록되어 있으나, 신라 진흥왕 시대(540~576)에 건립한 巡狩碑나 진평왕 시대(579~632)에 건립된 南山新城碑 등에 새겨진 인명을 보면 姓을 쓴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

한국인의 족보 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인의 족보를 살펴보면 어쨌거나 고구려는 장수왕 이전부터 성을 쓴 사람이 있었고, 신라는 진흥왕 시대, 백제는 근초고왕 시대부터 성을 써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姓을 쓴 연대를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 정사(正史)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약 350년경부터 특수층의 일부가 姓을 사용한 것으로 보면 맞다고 하겠다.

그리고 고려 태조 때부터 姓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태조는 사성을 많이 했다. 예를 들면 지금의 강릉지방을 관장하고 있던 명주 장군 順式이 귀순하자 王씨의 성을 주고, 발해태자 大光顯이 귀순하자 또 王씨의 성을 주었으며, 신라인 金幸이 태조를 보좌하는 데 권능이 많다하여 權氏성을 주었다.

이 이가 바로 오늘날의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시조가 되었다. 또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고려 태조가 개국한 뒤, 木川사람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키므로 이를 미워하여 牛, 馬, 象, 豚, 獐과 같은 짐승의 뜻을 가진 글자로 성을 주었는데 뒤에 牛는 于, 象은 尙, 豚은 頓, 獐은 張으로 고쳤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고려 중기 문종 9년(1055)에 성을 쓰지 아니한 사람은 과거에 급제할 자격을 주지 아니하는 법령을 내렸는데, 이때부터 성이 일반 대중에게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3. 인제군의 姓씨 및 본관

우리나라의 姓씨 및 본관을 살펴보면 총 275개성에 3,349개의 본관으로 되어있다.(’85인구및 주택센서스조사 결과)

인제군의 경우 90년도 상주인구 조사결과를 보면 총 가구수는 10,230가구인데 가구주의 성씨별 통계를 보면 120성에 542개의 본관으로 되어 있다.

### 4. 인제를 본관으로 하는 姓씨

인제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朴씨와 이씨가 있다. 십여년 전만해도 인제박씨가 관내에 살고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朴씨도 李씨도 인제군 관내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인제朴씨가 80가구에 481명이 현존하고, 인제李씨는 68가구에 290명이 현존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朴씨가 3가구에 36명, 李씨가 2가구에 8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후손이 번창하지 못하였고, 일정한 거처가 없이 부동하는 인구가 많음을 알 수가 있다. 다음에는 두 성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麟蹄朴氏>

朴씨의 본관은 각종 문헌에 300여 본이라고 전하나 그중 시조가 확실하게 밝혀졌고, 또 후손이 현존하는 파계는 70여 본에 불과하다. 문헌에 의하면 우리나라 씨족 가운데 외래귀화씨족이 130여 본이지만 그중 박씨만이 단 한 본도 끼어 있지않고 오직 박혁거세의 혈손으로 우리민족 가운데서 가장 순수한 혈족을 이어온 씨족이라 할수 있다. 박씨는 신라왕국 992년 동안에 열사람이 왕위에 올랐으며, 박혁거세의 29세손인 승영(昇英, 신라 54대 景明王)의 아홉 아들중 제1자彦忱이 밀성(밀양의 옛이름)대군에 봉해져 후손들이彦忱을 시조로 본관을 밀양이라 하였다.彦忱의 3세손인律이 麟蹄郡에 봉해짐으로써 후손들이 본관을 麟蹄로 하여 世系를 계승하고 있다. 麟蹄郡의 후손인 閑甫는 뒤에 文州朴씨의 시조가 되었는데 그의 아들 光은 이성계의 조부 度祖의 장인으로 안변부원군에 봉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혈통이 좋고, 명문이 있는 씨족이 왜 번창하지 못하고 있는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麟蹄李氏>

인제이씨의 시조는 李原哲로 고려때 사람으로 증추원부사, 태사(太師), 수문전대제학, 문하평장사 등을 역임하였다고 전한다. 1978년에 편저된 족보의 서문에 의하면 인제이씨가 長城의 金洞에서 세거한지 5백여년이 지났으나 호수는 20여호에 불과하고 임진왜란때 선적이 소실되어 어느 대에 어떠한 이유로 본관을 인제로 하였는지 알 길이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족보에 2세인 德林의 묘소는 인제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4세 堅義의 묘소는 長城郡黃龍面阿谷에 있다는 사실로 보아 원래에는 인제에서 세거하다가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堅義가 비로소 장성에 입향한 것으로 짐작할 따름이다.

어찌되었거나 인제를 본관으로 하는 인제박씨와 인제이씨 두 문중에 광영이 있어 자자손손 번창하여 옛날의 영화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충분한 공부도 없이 문중이야기를 함부로 지껄였음을 용서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 이 글을 읽는 후손이 있다면 서로 연락만이라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 성씨에 대한 고찰

○인제군내 성씨별 총괄표

(90년 10월 1일 기준)

簡	姜	康	彊	慶	桂	高	孔	公	郭	丘	具	權	鞠
3	159	4	1	1	2	88	3	1	26	3	18	82	1

琴	奇	金	吉	南	南宮	盧	魯	都	獨孤	董	羅	呂	馬
3	1	2,277	19	34	8	64	7	5	1	3	16	8	15

孟	明	牟	睦	文	閔	朴	潘	方	房	龐	裴	白	范
5	4	2	6	60	28	1,002	7	21	2	1	38	46	1

薛	邊	卞	奉	夫	史	司空	徐	石	昔	宣	鮮子	成	孫
1	39	8	2	1	9	1	82	1	1	8	2	10	118

宋	承	沈	申	辛	慎	安	梁	楊	魚	嚴	燕	延	廉
95	1	174	185	7	2	204	80	8	8	104	2	11	12

芮	葉	吳	玉	王	龍	禹	元	魏	柳	兪	劉	庾	尹
2	1	121	3	2	48	22	55	9	127	11	27	1	207

李	卯	任	林	張	全	田	鄭	丁	程	趙	曹	朱	周
1,485	2	19	119	297	270	13	349	21	1	267	23	18	5

池	智	陣	秦	晉	車	蔡	千	崔	秋	卓	片	表	皮
44	2	26	4	2	47	32	21	644	12	12	4	3	1

河	韓	咸	許	玄	洪	黃	皇甫						
11	158	81	95	16	106	128	1						

※120성으로 분류 분포로 제일 많은 성씨순번을 보면 金씨(2,277), 李씨(1,485), 朴씨(1,002), 崔씨(644), 鄭씨(349), 張씨(297), 全씨(270), 趙씨(267), 尹씨(207), 安씨(204) 등으로 나타나 있다.

■ 성씨에 대한 고찰

○ 성씨별 본관 총괄표

簡(1)	姜 (10)										康 (3)			彊
여흥	진주	곡산	창원	연안	사천	평강	청송	보구	금천	강능	천안	과주	진주	진주
3	146	2	2	1	2	1	1	2	1	1	1	1	2	1

慶	桂	高 (9)										孔(2)	公(1)	郭 (2)	
청주	수원	제주	광영	해평	장흥	안동	개성	청주	마산	횡성	창원	개성	김포	현풍	청주
1	1	63	6	1	9	2	2	3	1	1	2	1	1	19	7

丘(1)	具 (2)	權 (3)			鞞(1)	琴	奇(1)	金 (58)						
평해	능성	창원	안동	밀양	김해	담양	봉화	행주	강능	강화	개성	경주	공주	광주
3	16	2	78	2	2	1	3	1	126	1	3	418	1	134

金														
금령	금산	김해	나주	남양	도강	삼척	상주	수원	보령	안산	안동	부안	양산	연안
41	2	1,110	5	2	2	61	7	3	1	2	81	3	1	35

金														
월성	의성	백(백)	순천	진위	청풍	진주	선(선)	경산	해평	함(함)	충주	청주	창평	축안
3	23	4	54	3	22	31	25	5	2	6	2	3	1	1

金														
용인	서흥	사천	청도	광주	영천	울산	밀양	정선	상산	원주	무장	풍산	진천	설성
3	3	1	3	6	2	2	1	6	7	1	3	1	2	1

金							吉 (2)		南 (5)				
인양	김제	진주	해평	진영	고산	화순	해평	선산	의령	영양	고성	순흥	양주
1	2	3	1	1	1	1	15	4	17	11	3	2	1

南宮(3)			盧 (8)							魯 (2)		都 (2)		
함풍	함열	남평	광주	교하	함흥	함평	진주	풍천	당산	충주	함평	교하	성주	제주
3	2	3	48	8	1	2	1	2	1	1	5	2	4	1

■ 성씨에 대한 고찰

득곡(1)	童 (2)	羅 (2)	呂 (2)				馬 (2)		孟 (2)		明 (3)			
남원	영천	대구	나주	금성	성주	함양	함흥	장흥	목천	신창	온양	한양	연안	서독
1	2	1	13	3	3	4	1	10	5	3	2	3	2	1

牟(1)	陸(1)	文 (3)			閔 (2)		朴 (21)								
함평	사천	남평	김천	해주	여흥	충주	밀양	춘천	반남	강능	죽산	충주	영암	순천	
2	6	58	1	1	27	1	744	150	16	8	12	5	7	4	12

朴											潘 (4)				
고령	영해	함양	무안	의흥	평주	홍천	음성	전주	삼척	상주	진원	거제	광주	남원	개성
3	8	4	16	2	1	4	1	1	1	2	1	2	3	1	1

方 (2)		房(1)	龐(1)	裴 (7)							白(1)	范(1)	薛(1)	邊(3)
온양	개성	남양	온양	경주	성주	분성	홍해	달성	김해	창령	수원	광주	순창	원주
20	1	2	1	11	12	5	3	4	2	1	1	1	3	35

邊		卞 (2)		奉(1)	夫(1)	史 (2)		司寇(2)	徐 (5)					石(1)
장흥	황주	초계	밀양	하음	제주	청주	거창	호령	달성	이천	장성	경주	대구	충주
3	1	5	3	2	1	4	5	1	42	35	2	2	1	1

昔(1)	宣(1)	鮮(1)	成 (3)			孫 (3)			宋 (13)						
월성	보성	태원	창령	함양	강능	밀양	경주	평해	김해	은진	진천	덕산	예산	청주	신평
1	8	2	7	1	2	108	7	3	4	20	8	2	29	2	2

宋					承(1)	沈 (6)					申 (5)			
홍주	밀양	연안	여산	남양	부산	연일	청송	정선	원주	충주	삼척	풍산	평산	고령
1	3	1	20	2	1	1	166	2	1	2	2	1	164	10

申			辛 (3)			愼(1)	安 (7)						
영월	청송	아주	영월	천안	영산	거창	순흥	죽산	광주	안동	괴산	진주	여산
9	1	1	4	1	2	1	181	4	11	5	1	1	1

▣ 성씨에 대한 고찰

梁 (6)						楊 (3)			魚 (2)		嚴 (3)			燕 (2)	
남원	제주	전주	연평	강능	중화	남원	충주	김해	충주	함중	영월	금성	안양	마평	죽산
64	12	1	1	1	1	4	3	1	3	5	101	1	2	1	1

廉 (2)		芮 (2)		葉(1)	吳 (9)									
파주	파평	수원	성주	해주	해주	함양	보성	산청	고창	동북	평창	함평	광주	
11	1	1	1	1	98	1	6	1	6	4	2	1	2	

玉 (3)			王(1)	龍(1)	禹 (2)		元 (3)			魏 (2)		柳 (13)		
의령	단성	강능	개성	홍천	단양	여주	원주	고성	경주	장흥	대령	문화	고흥	강능
1	1	1	2	48	21	1	53	1	1	8	1	71	13	13

柳										兪 (2)		劉 (6)		
진주	무안	기계	거창	창령	전(顯)	북청	풍산	모금두	선산	기계	경주	강능	백천	한산
15	1	3	1	1	4	1	2	1	1	10	1	19	2	1

劉			庾(1)	尹 (7)								李 (56)		
창령	고흥	모금두	평산	파평	남원	해남	해평	강능	칠원	제천	전주	경주	원주	
1	1	3	1	188	2	2	9	1	1	3	778	271	20	

李														
용인	여주	수원	인천	진성	전의	덕수	평창	성산	연안	홍주	성주	진주	광주	
26	19	5	5	2	4	8	139	2	11	9	12	5	15	

李														
협천	단양	벽진	양성	고성	함평	충주	가평	한산	우계	부평	광산	울산	영천	
8	6	6	1	5	2	6	1	12	2	1	2	1	11	

李														
예안	안성	청주	청해	고령	우봉	공주	함안	진안	재령	청안	화산	대흥	강화	
2	5	10	9	5	7	5	2	2	2	4	1	1	1	

▣ 성씨에 대한 고찰

李											印 (2)	任 (2)		
신평	부안	남평	청송	아산	강진	정선	장수	양주	나주	단성	연안	교통	풍천	장흥
2	1	2	1	2	3	1	1	1	1	1	1	1	15	4

林 (13)													張 (10)	
나주	평택	풍천	울진	무안	아산	경주	성주	단월	영흥	예천	익산	완의	단양	안동
40	53	5	2	6	1	1	1	2	1	2	3	2	60	57

張								全 (8)						
인동	울진	결성	홍성	청송	순천	진천	한양	정선	담양	옥천	전주	천안	용궁	
145	24	4	2	1	1	1	2	235	7	10	5	8	3	

全		田 (3)			鄭 (21)									
위산	경산	죽산	정선	단양	담양	연일	동래	봉화	하동	나주	경주	청주	진양	온양
1	1	6	6	1	159	31	34	18	11	35	8	17	2	

鄭													丁 (6)
고성	광주	서산	초계	달성	부여	풍기	해주	정산	청주	청산	평창	동래	나주
2	3	1	9	1	1	2	7	1	3	3	1	3	13

丁					程(1)	趙 (11)								
창원	의성	영광	삼척	하남	풍양	횡성	한양	함안	옥천	백천	양주	해주	남원	
2	1	1	1	1	133	20	69	24	3	7	4	2	2	

趙	曹(1)	朱 (2)	周		池 (2)		智 (2)		陳 (8)				
김제	강능	창령	신안	장흥	상주	초계	충주	청주	이천	봉산	삼척	영양	남해
1	2	23	17	1	4	2	42	2	1	1	4	12	2

陳					秦 (3)			晋	車 (3)			蔡 (3)			
남원	은진	강능	풍기	나주	신천	대원	여양	남원	연안	평산	여량	평강	인천	동창	
1	1	4	1	1	1	2	1	1	45	1	1	28	3	1	

■ 성씨에 대한 고찰

千 (4)				崔 (23)										
영양	남양	개성	안동	강능	전주	경주	해주	동주	탐진	광주	강화	황극	초계	수원
15	3	2	1	193	125	172	78	16	6	4	1	2	3	3

崔												秋 (3)		
삭령	수성	화순	죽산	낭주	충주	홍해	양천	부안	간성	평강	청주	초계	신안	해주
13	7	3	1	1	4	2	1	2	4	2	1	10	1	1

卓 (2)		片 (2)		表 (3)			皮(1)	河			韓 (5)				
광산	광주	나주	절강	풍산	죽산	신창	공주	진주	수원	청주	옥천	청송	단능	진도	
9	3	2	2	1	1	1	1	10	1	154	1	1	1	1	

咸 (5)					許 (4)				玄 (3)			洪 (5)		
강능	함안	강화	양근	칠봉	김해	양천	하양	홍천	순천	연주	창원	남양	풍산	
73	1	1	3	3	4	32	4	2	4	11	1	92	5	

洪			黃 (6)							皇甫(1)
홍주	남원	부림	창원	평해	장수	우주	상주	하남	영천	
2	4	3	23	84	12	4	4	1	1	

○麟蹄朴氏 分布現況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가구	80	31	5	5	9	11	3	2	4	3	3	3	1
가구수	481	139	68	20	50	60	36	7	20	13	41	19	8

※ 도내 : 정선 1가구 4명, 양구 1가구 3명

○麟蹄李氏 分布現況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가구	68	31	7	3	3	3	2	3	3	1	8	1	3
가구수	290	124	30	15	12	22	8	5	7	8	33	7	19

※ 도내 : 고성 1가구 4명

# 군의회 의 개원과 권한 및 기능

편집실 제공

## 1. 개원

1991년 4월 15일 30년만에 지방의회가 역사적인 지방자치의 막을 올리는 개원식을 가졌다.

인제군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7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을 위한 임시회 본회를 열고 의장에 정재학씨 부의장에 이기우씨를 각각 선출하고 원을 구성했다.

또한 군수를 비롯한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개원식을 갖고 임기 4년동안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 2. 권한과 기능

군 의회는 군정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다.

의원의 기능은 의결기능, 입법기능, 통제기능, 조정기능 등 4가지로 대별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1년동안 쓸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이다.

주민이 낸 지방세를 어떠한 사업에 얼마만큼 어떻게 사용할지 그 기준을 정하고 확정하는 일로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복리와 편익에 좌우된다고 볼수 있다.

또 법령에 명시된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가입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데 다른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예를들어 군소유의 공동시설물을 주민이 유료로 사용케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군의 재산을 구입하거나 처분할때는 일반 가정에서 집을 새로

장만하거나 처분할때 부부가 서로 상의하듯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법령의 범위안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고치거나 폐지하는 입법 권한도 군 의회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다.

물론 아무 근거없이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것은 아니며 국가에서 정한 법이나 시행령 또는 도의회에서 정한 조례의 범위 내에서 특성에 맞게 하위 조례를 만들거나 고칠 수 있다.

지방공무원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 감시권이다. 군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군정의 잘못을 따지고 감시하기 위해 행정 사무 조사권과 답변 요구권을 갖고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의결로 행정이 한 일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때는 군수를 의회에 나오도록 해 증언케 하거나 의견을 진술토록 할 수 있다.

의원들은 또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에 대한 청원을 수리하고 심사결정 내용을 군청에 통보할 수 있고 청원이 없더라도 군 또는 외부기관에 주민을 대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의회회 회기는 정기회 30일을 포함 60일이 된다.

▣ 군의회와 기능

郡議會議員 名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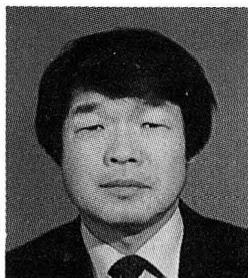
총선거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득표수
麟蹄邑	鄭在鶴	42. 10. 23	麟蹄邑 上東 2/2	藥局業	慶熙大卒	郡새마을支會長 郡政諮問委員	1,654 (34%)
"	崔泰雲	45. 11. 11	麟蹄泣 南北 2/2	農 業	보통교졸	麟蹄邑 南北2理長 麟蹄邑農村指導者會長	1,799 (37%)
南 面	李奇雨	41. 3. 10	南面 新南 1/6	製造業	洪川農高	新南單協營農部長 南面繁榮副會長	무투표
北 面	申大植	24. 8. 15	北面 元通 4里	商 業	교원대졸	元通로타리클럽會長 郡獎學財團理事	1,795 (41%)
麒麟面	朴聖重	39. 10. 20	麒麟面 縣 1리	商 業	麒麟中卒	郡政諮問委員 麒麟面繁榮會長	1,118 (38%)
瑞和面	韓義東	54. 12. 8	瑞和面 千桃 2/2	商 業	麟蹄高卒	자유총연맹瑞和指導 委員長	1,328 (65%)
上南面	嚴奎完	36. 2. 4	上南面 上南 3里	農 業	洪川農高	郡文化院理事 郡醫療保險組合理事	1,139 (74%)

道議會議員 名單

총선거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득표율
제1선거구	(무소속) 李基順	53. 12. 12	麟蹄邑 上東 3里	商 業	麟蹄高卒	飛鳳單協商務 麟蹄青年會議所會長	4,306 (38%)
제2선거구	(민자당) 邊完基	43. 5. 5	麒麟面 縣 1里	藥局業	慶熙大卒	地域黨副委員長 藥事	4,456 (65%)

제1선거구: 麟蹄邑, 北面, 瑞和面

제2선거구: 南面, 麒麟面, 上南面



## 효와 조상숭배 그리고 노인공경

인제문화원 이사  
임 광 준

### 1. 효와 조상숭배

#### 가) 효의 근본

부모는 나를 낳아준 근원이요 나를 키워주고 배움을 가르쳐준 스승이다. 또한 부모는 나의 모든것을 편에서서 생각해 주고 느끼며 믿어주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다. 그러면서도 부모는 자식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이면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며 효행을 다 하는것은 끝없는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기 부모가 남의 부모보다 잘생기고 돈이 많고 덕망이 높아서가 아니다. 비록 부모가 넉넉치 못한 가장이고 사회적 지위가 없어 낮은 지위에 있고 학식이 없다해도 앞에서 말 한바와 같이 나를 길러 주시고 배움을 가르쳐 주신 혈육적 관계이기 때문에 자식은 정성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 이면에 부모는 자식을 다른집 아이보다 똑똑하거나 예뻐서 사랑하는것이 아니고 혈육을 나눈 자식이기에 사랑하며 보살펴 주는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인자하고 희생적인 조건없는 사랑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언제나 자녀에게 부드럽게 대하기만 하는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한다.

부모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므로 자식의 잘못을 고쳐 주기 위하여

---

## ▣ 효행

---

때로는 혈육의 정을 누르고 엄하게 대하기도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한석봉의 어머니는 떡장사로 아들을 공부시키며 생계를 이어갔다. 하루는 한석봉이가 어머니가 보고 싶어 집으로 돌아왔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아들을 되게 꾸짖어 돌려 보냈다. 이렇게 준엄하게 키운 한석봉이는 학문과 글씨가 뛰어나서 후세에 명성을 높였다. 이것은 그 어머니의 준엄한 힘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한석봉의 어머니인들 자식 사랑은 왜 없겠는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한 집념으로 돌아온 자식을 냉엄하게 대한것은 누구도 이 어머니를 비정한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면 그 자녀를 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비록 사소한 잘못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꾸짖을 수도 있고 부모 슬하를 떠나 혼자 살수도 있다는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나를 꾸짖고 냉엄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를 미워해서 버리려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부모가 나의 과오를 무조건 덮어주고 맹목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는것은 먼 앞날을 생각할때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 나) 효행의 길

한자의 효(孝)라는 글자는 노(老)와 자(子)가 합하여져서 이루어진 글자로 자녀가 부모를 받들어 섬긴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효의 근본정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큰 은혜에 대하여 보답한다는데 있다. 흔히 효자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 왔으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마도 과거의 효자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이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들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해 왔던것이 아닌가 한다.

예를 든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힘들여 사물을 구했거나 부모님의 병환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정성을 다해 병을 고친 효자에 얽힌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이렇듯 효성은 희생적이어야 하고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자의 말씀중에 이런말이 있다. “사람들은 대개 효라고 하면 부모를 음식이나 좋은 옷으로만 봉양하면 되는 것인줄 아나 개나 말도 다 양육함이 있으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부모에게 효를 함에 있어서 물질적인 봉양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정신적인 공경심과 정성이 밑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효를 행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효를 다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만 있다면 자고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노는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효경(孝經)에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손상시키지 않는것이 효의 시작이요 자기의 인격을 완성하고 도(道)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남김으로써 부모를 드러 내는것이 효의 끝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을 잘 가다듬고 나쁜일을 하지말며 다치지 않도록 하는데서부터 효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와같이 도리를 다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효를 다하는 사람이요 부모의 이름까지도 저절로 드러내게 되는것이다. 이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으며 전통적 도를 낳게 한다.

#### 다) 조상숭배

우리는 좁게 생각할때 나를 오늘에 있게한 근원이 부모 조부모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넓게 생각할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여 전승해준 근원도 부모님 또한 조부모로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나를 오늘에 있게한 근원과 이땅을 물려준 조상님에 대하여 효를 다함은 중요한 전통사회에서의 의무요 더 나아가서 조상의 숭배정신을 기르며 하루라도 잊지 말아야할 도리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 하나인 조상숭배는 가족의 존속은 물론이고 민족의 존속까지 있게한 끈끈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할 것이다. 이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다른나라 침략이나 압박이 있을 때마다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이에 대응하여 국토와 문화를 지켜 올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통해 조상을 숭배하여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제사를 들수 있다.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이 아직도 한 울타리 안에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음을 뜻하는 공동체 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고 친척들이 한데모여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체의 유대를 다질 수도 있다.

이러한 뜻에서 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 자신의 삶을 유익하고도 의미있게 하는 행위일뿐 아니라 나아가 민족의 영원한 존속을 위해서도 뜻깊은 일이다.

제사의 형식은 신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 노인공경

### 가) 경로와 효친

부모를 섬기며 공경하는 것을 효친이라 하고 노인을 섬기며 공경하는 것을 경로라고 한다. 이처럼 효친이나 경로는 단지 그 공경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공경하는 태도와 생활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효친이라는 말과 경로라는 말의 두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경노효친(敬老孝親)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맹자의 말씀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미루어 남의 부모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루어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까지 미치게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때 이 모든 마음을 미루어 만물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효경에 이르기를 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못한다고 하였다. 경로와 효친에 관한 이러한 여러가지 명언들을 보면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의 마음은 바로 제 어버이를 공경하는 효친의 마음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제 어버이를 공경하는 효친의 마음은 인간의 모든 행실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받드는 것은 노인이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다. 다만 연세가 많은 어른이기 때문이다. 연세가 많은 어른인 노인은 그동안에 쌓아온 풍부한 인생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여 나이 어린 우리들이 잘 되도록 보살펴주고 바른길로 이끌어 준다. 이처럼 노인은 풍부한 생활경험을 잘 활용함으로써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할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일을 통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젊음을 불살려 역사와 문화를 오늘의 우리 젊은이에게 이어주었고 우리를 훌륭하게 키워준 원로인들로서 우리 사회의 부모이고 공로자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산업시대와 서구문명이 들어와 전통문화가 희박해지고 능률 위주와 욕구만족을 기대하는 취약점이 발생하는 문제가 많아졌다.

이러한 취약점인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지혜롭게 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대처하고 젊은 세대에게 인도하여 원만한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데 우리 노인이 큰 몫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이 젊은 세대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그 세대에는 노인이 가족의 중심이 되었으며 또 사회 생활에 중심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노인은 근로 능력이 있는한 사회에 참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후진 양성을 위하여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임금앞에서 경서를 강론하는 자리였던 경연(經筵)은 노인들의 풍부한 지혜와 오랜 생활경험을 적절하게 활용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 나) 노인문제와 우리의 자세

우리나라는 5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갖고 지녀온 민족이다.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와 같은 수많은 외침을 받아온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강인한 민족성으로 우리 조상들은 지켜왔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서구문명의 유입과 산업발달에 변화와 조화를 이루고 또한 핵가족 시대를 맞아 우리 노인들은 사회나 가정에서 많은 소외감을 주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시키고 있다. 물론 노인들은 과거의 정보와 지성에는 밝은편이지만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지식과 정보사회에는 젊은 사람들만 못한점이 원인이 되겠다.

또한 젊은 사람들은 산업사회에 적응하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기 위하여 생활에 매달려야하고 손자손녀는 학교공부에 열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과 대화와 같이 지낼 시간이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경제권도 옛날에는 가정의 중심이 노인이었기에 의식주 생활 책임감을 다 부여 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노인들은 책임감에서 벗어나 젊은 사람들의 중심적 생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층 노인들은 할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겪게되는 어려움의 하나이다.

한편으로는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하나 둘 친구는 세상을 떠나고 병에 늙게 되는것을 목격할때 자연히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독함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핵가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식들이 부양기피에 의해 빚어지는 문제와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얻어쓰는 용돈문제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노인들이 모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노인들이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여생을 즐기

는 분도 많다. 결국 오늘날의 노인문제는 사회에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든 문제로 보아야 하며 시대에 따라 누구나 노인이 되면 겪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경험속에 살아오신 노인네들의 지혜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 사회에서 역할을 찾아 풍부한 지혜를 살릴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들을 귀찮고 시대에 뒤떨어진 분들로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선배인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동반자로 인식할때 오늘날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원래부터 노인인 사람은 없다. 우리도 바로 미래의 노인인 것이다.



## 紙榜과 祝文쓰는 법

인제군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이 병 준

### 1. 지방쓰는 법

지방은 목욕제계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꿰어 앉아서 써야하며 지방을 쓸 때의 글씨 중에서 고(考)는 부(父)와 같은 뜻으로 생전에는 父라 하고 사후에는 考라 하며 비(妣)는 모와 같은 뜻으로 생전에는 모(母)이며, 사후에는 妣라 한다. 고인에게 관직이 있으면 처사(處士) 또는 학생(學生)이라 쓰며, 부인에게도 봉호(封號)가 있으면 봉호를 쓰고 없을 때는 “孀人某貫氏(예: 유인경주이씨(孀人慶州李氏))”라 쓰고 18세 미만에 죽은 자식은 “망자수재(亡子秀才(士))”라 쓰고 남편은 현벽(縣辟)이라 쓰며 백중숙부모(伯仲叔父母) 또는 백중숙고비(伯仲叔考妣)라 쓰고 합사인 때의 지방은 남좌여우(男左女右)로 쓴다.

아내의 경우에는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주제(主祭)가 되고 자식(장자)의 경우에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주제가 되며 지방은 신주라는 뜻으로 깨끗한 백지(한지)에 먹을 진하게 갈아서 세로로 붓글씨를 쓰며 길이 22cm 폭 6cm정도로 한다.

지방은 신의 자리를 표하는 것을 집의 가장 높은 자리에 평풍을 치고 그 중앙에 지방을 붙여서 신위를 정하며 이 경우에 비록 사진을 놓았다 하더라도 지방을 붙여 신위를 정한다음 사진을 놓는것이 좋을 것이다.

○ 고조부모

顯高祖妣孺人忠州李氏 神位

顯高祖考處士(學生)府君 神位

○ 증조부모

顯曾祖妣貞敬夫人高靈申氏 神位

顯曾祖考正憲大夫觀察使府君 神位

○ 조부모

顯祖妣淑夫人金海金氏 神位

顯祖考通政大府縣令府君 神位

○ 부모

顯妣孺人慶州李氏 神位

顯考處士(學生)府君 神位

○ 부모전후취

顯妣孺人密陽朴氏 神位

顯妣孺人慶州金氏 神位

顯考處士(學生)府君 神位

○ 백중수부모

顯伯(仲叔)母孺人慶州鄭氏 神位

顯伯(仲叔)父處士(學生)府君 神位

○ 남편

顯辟處士(學生)府君 神位

○ 처

亡(故)室孺人慶州鄭氏 神位

○ 형

顯兄學生府君 神位

○ 동생

亡弟學生○○○ 神位

## 2. 축문쓰는 법

축문은 신위(神位)앞에 고하는 글이다. 내용은 제위(祭位)분께 망일(亡日)을 맞이하여 간소한 제수(祭需)나마 흠양하시라는 뜻을 고하는 글이다.

- 유세차(維歲次) : 제문의 첫머리에 쓰는말. 해의 차례 생각하건데 간지를 따라서 정한해로 말하자면의 뜻이다.
- 간지(干支) : 천간(干干)과 지지(地支)를 말하는데 육십갑자를 뜻한다. 즉 그해의 태세(太歲)를 쓴 글이다.
- 모월(某月) : 제사달을 쓴다. 제사달이 5월이면 5월을 쓴다.
- 모일(某日) : 제사날이 15일이면 15일이라 쓴다.
- 간지삭(干支朔) : 제사달의 초하루 일진(日辰)을 말한다. 예를들어 초하루 일진이 갑인(甲寅)이면 갑인삭(甲寅朔)이라 쓴다.
- 간지(干支) : 제사날의 일진(日辰)을 그대로 쓴다. 예를들어 제사 당일의 일진이 갑자(甲子)면 갑자(甲子)라 쓴다.
- 감소고간(敢昭告于) : 삼가 밝게한다는 뜻이다. 주의할점은 처상(妻喪)에는 소고우라 하고 동생이하는 고우라 쓴다.

※축문에 있어 다음 단어는 특히 주의해서 틀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휘일부림(諱日復臨) : 처(妻), 제(弟)이하는 망일부지(亡日復至)라 쓴다.
- 호천강극(昊天岡極) : 祖, 考, 妃 이상은 불승영모(不勝永慕)라 하고 방친(旁親)에는 불승감창(不勝感愴)이라 하고 처(妻)에는 비도산고(悲悼酸苦)라 쓴다.
- 근이(謹以) : 처(妻), 제(弟)이하는 자이(茲以)라 쓴다.

※여자위에는 본관성시를 쓰고 남자위에는 학생(學生)을 사용하지만 생전에 벼슬을 했으면 그 관직의 이름을 쓴다. 그의 부인은 남편의 관직명을 따라서 유인대신에 과직명을 쓴다.

① 고조부모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玄孫○○

敢昭告于

顯高祖考學生府君

顯高祖妣孺人清州朴氏 歲序遷易

顯高祖考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謹以清酌 庶羞恭伸 奠獻尙饗

• 할아버지 할머니 해가 바뀌어 할아버지 돌아가신날이 다시 돌아오니 영원토록 사 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으로 공손히 전을 드 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고조모의 경우에는 현고조고(顯高祖考)를 현고조비(顯高祖妣)라 고쳐쓴다.

② 증조부모

維歲次干支 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曾孫○○

敢昭告于

顯曾祖考學生府君

顯曾祖妣孺人全州李氏 歲序遷易

顯曾祖考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謹以清酌 庶羞恭伸 奠獻尙饗

• 이 축문은 증조부 제사 축문이다. 증조모의 경우에는 5번째줄 첫머리 현증조고(顯曾祖考)를 현증조비(顯曾祖妣)로 고쳐 쓰면 된다.

③ 조부모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孫○○

敢昭告于

顯祖考學生府君

顯祖妣孺人光州李氏 歲序遷易

顯祖考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

謹以清酌 庶羞恭伸 奠獻尙饗

• 이 축문은 조부모가 다 돌아가셨을 경우 조부의 제사 축문이다. 조모의 경우에는 현조고(顯祖考)를 현조비(顯祖妣)로 고쳐 쓴다.

④ 부모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顯妣孺人金海金氏 歲序遷易

顯考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清酌 庶羞恭伸 奠獻尙饗

• 이 축문은 부모양위분계서 다 돌아가셨을 경우의 아버지제사 축문이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5번째 줄 첫머리 현

고휘일(顯考諱日)을 현비휘일(顯妣諱日)

으로 고쳐 쓴다.

⑤ 남편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妻○○○

敢昭告于

顯辟學生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清酌 庶羞恭伸 奠獻尙饗

• ○년 ○월 ○일 ○○○는 삼가 고하나이

다. 해가 바뀌어서 남편이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

여 삼가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으로 공

손히 절을 드리오니 흠양하시옵소서.

⑥ 처(妻)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夫○○○

敢昭告于

亡室孺人河東鄭氏 歲序遷易

亡日復至 追遠感時 不勝憾愴

茲以清酌 庶羞恭伸此 奠儀尙饗

⑦ 형(兄)

維歲次某年某月朔某日干支弟○○○

敢昭告于

顯兄學生府君 歲序遷易

諱日復臨 不勝悲痛 謹以清酌庶羞 恭神奠獻

尙饗

• 세월은 흘러 형님의 제사날이 다시 돌아 오니 형제지간의 정리로 비통한 마음 한

랑 없습시다.

여기삼가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을 차  
려 공손히 올리오니 응감하소서.

⑧ 아들

維歲次壬申 正月甲子朔初二日乙丑

父○○

敢昭告于

亡子○○ 歲序遷易 亡日復至 心燬悲念 茲以  
清酌 陳此奠儀 尙饗

• 너의 제사날을 다시 맞으니 아버지의 마음  
은 불타는것 같고 비통한 마음 한량없어  
이에 맑은 술을 차렸으니 응감하여라.

⑨ 斬破土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幻學○○○○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郡守廣州李公(벼슬이 없으면  
學生, 부인이면 孺人廣州李氏)營建宅兆 神  
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清酌脯醢 祇薦于神 尙  
饗

• 일명 산신축 토지신축이라고도 하며 초종  
에 처음 산에서 개광(땅을 팔때)시에 산  
신에게 고함

• 년월일 아무개는 토지신에 감히 고합니  
다. 이제 군수광주이공을 위하여 광증을  
세우오니 신께서 후환이 없도록 지키시고  
도우셔서 삼가 술과 포과로서 신에게 올  
리오니 흠향하옵소서.

⑩ 先鑿祝(만일 장지가 선영묘 국내에 있  
게되면 최존 조상 一位에만 고유한다)

維歲次戊申三月丁卯朔十一日丁丑幼學○○○○

敢昭告于

顯七代祖考通訓大夫(벼슬이 없으면 學生이  
라함) 府君之墓 今爲五代孫(亡者의 代數로  
한다)學生○○ 營建宅兆(합장이면 營建宅兆  
를 고쳐서 合窆于五代孫妣 孺人金海金氏之  
墓라고 함) 謹以酒果 用伸 虔告謹告

• 평토제전에는 고유자는 주인의 친족이고  
하는 것이니 선조의 대수는 고유자의 대  
수로 한다.

• 년월일 아무개는 칠대조할 아버지 묘소에 감히 고합니다. 이제 오대손 아무개가 광중을 세우고저 삼가 술과 과일로 삼가고 합니다.

⑪ 先葬位祝(합장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쓴 묘소에 고함)

維歲次戊申三月丁卯朔十一日丁丑孤哀子○○幼學○○○敢昭告于

顯妣孺人金海金氏之墓 某○ 罪逆凶變 先考 見背 日月不居 葬期已屆 將以某日合封于墓 右 昊天罔極 謹以酒果 用伸虔告 謹告

• 년월일 아무개는 아무개의 어머니 묘소에 감히 고합니다. 밤낮으로 슬피사모하며 아버님과 어머니 합께 같이 계시도록 장차 아무날 합봉코저 삼가 술과 과일로써 고합니다.

※某罪逆凶變의 某字에는 상주와 이름을 쓰고 先考... 아버지의 묘에 어머니를 합장 할 때는 先妣墓右...考에는 墓右妣에는 墓左라고 씀

⑫ 行日告辭

今日 遷柩就興 敢告

• 오늘 널을 옮기여 상여로 내가며 감히 고합니다.

※현재에는 이 축문은 거의 사용하지 않음

⑬ 遷柩告辭(계빈축)

今以吉辰 遷柩敢告

• 이제 좋을 때이므로 관을 밖으로 옮기고 저합니다.

※이 고사는 발인전날 빈소에서 관을 사당에 모시려고 옮길 때 관에 고하는 축문으로 써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음

⑭ 청조조고사

請朝祖

• 할아버지에게 고하기를 청합니다.

※이 고사는 발인전날 널을 옮기어 사당에 퇴일때 사당에 고하는 축문으로 써 현재 사용하지 않음

⑮ 祖奠祝

永遷之禮 靈辰不留 今奉柩車 式遵朝道

• 영원히 가시는 때이오니 좋은 때가 머무

르지 아니하여 상여를 받들겠오니 아침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사는 발인전날 저녁에 제사지낼 때 고하는 축문

16 遷柩就輿告辭

今遷柩就輿敢告

• 이제 곧 관을 옮기어 상여를 내가고저 고합니다.

※이 고사는 사당에서 관을 상여로 옮길 때 고하는 축문으로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음

17 發靱告辭

靈鯉既駕 往即幽宅 載陳遺禮 永訣終天

• 상여를 메게 되었오니 다음은 곧 우덤 일 것입니다. 보내는 예를 배푸오니 영원토록 이별하옵심을 고합니다.

18 路祭祀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留學○○○

昭告于(아들이면 敢昭告于)

學生廣州李公(次子)가 노제를 지낼경우 顯考(學生府君)之靈 平素厚德 社會事業 其功不微 永世不忘 謹以清酌 脯果敬奠于神 尙饗

• 아무개는 광주이공 영전에 고합니다. (고인의 덕행) 그 공을 영원히 잊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포 및 과일을 받들어 모시오니 흠향하옵소서.

※이 고사는 장남을 제외한 아들 딸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친구들이 상여가 장지로 운구되는중 로면에서 제수를 장만하여 지내는 제례축이나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음

19 山神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 留學○○○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某官姓名(學生廣州李公) 營建宅兆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清酌脯醢 祇薦于神 尙饗

• 년 월일 아무개는 토지신에게 고합니다.

이제 광주이공의 광증을 세우오니 신께서 후환이 없도록 지키시고 도우시도록 삼가 술과 포해로서 신에게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이 축은 일명 토지신축이라고도 하며 묘를 다 쓴 후에 묘소 우측상단에 땅을 밟은 신에게 고하는 축.

⑳ 題主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孤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形歸窀穸 神返室堂 神主既成

(신주를 만들지 않았으면 未成 또는 紙位既

成이라고 함) 伏惟尊靈 舍舊從新 是憑是依

• 년월일 아무개는 아버지전에 삼가고 합니

다. 형체는 광중문석으로 가셨으나 신은

집으로 돌아가시옵소서. 혼백상자를 그대

로 모시오니 여기에 의존하소서.

※이 축은 성분축 또는 평토 축이라고도 한

다.

— 神主 : 평토제를 지내기 전에 위패에 글

씨를 써서 혼백앞에 모시고 행사

한다.

— 紙位既成 : 신주를 모시지 않고 지방을

모실때 지위기성이라 함

㉑ 初虞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孤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初虞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清酌庶羞 哀薦祿事 尙饗

• 년월일 아들 아무개는 아버지께 고향이나

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초우가 되었으니

슬픈 생각에 편치 못하므로 술과 음식으

로써 슬프게 협사로 친신하오니 흠향하옵

소서.

※일명 반혼제 축이라고 하며 장례를 치르

고 집에 돌아와서 지내는 축문.

• 다음날은 奄及再虞 삼일째 되는날은 奄及

三虞라 하고 再虞시에는 虞事, 三虞에는

成事 尙饗이라고 고향.

㉒ 卒哭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孤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卒哭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清酌庶羞 哀薦成事 尙饗

• 삼우가 지난 석달후 강일을 택해서 지낸

다

※이 축은 죽은이를 할아버지에게로 배양한

다고 고향하는 것이며 조부가 살아계시면

曾祖考에 고향.

⑳ 小祥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小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清酌庶羞 哀薦常事 尙饗

• 이 축은 소상때 고하는 축.

• 년월일 아들 아무개는 고합니다. 아버지  
가신날이 돌아오니 영원토록 애모하는 마  
음 금할길 없어 삼가 맑은 술과 여러 음  
식을 공손히 전을 드리오니 흠향하옵소  
서.

㉑ 大祥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大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清酌庶羞 哀薦祥事 尙饗

• 년월일 아들 아무개는 아버지전에 고합니  
다. 세월이 흘러서 벌써 대상을 맞았습니  
다. 날이면 날마다 슬피 사모하여 편할  
수 없었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음식을  
공손히 절을 드리오니 흠향하옵소서.

㉒ 禫祭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禫祭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清酌庶羞 哀薦禫事 尙饗

• 담제란 복을 다 벗는다는 뜻으로 제사(탈  
상) 담제는 대상을 지낸 3개월후 丁일  
또는亥일.

㉓ 一年脫喪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日月不居 奄及朞祥

夙興夜處 哀慕不寧 二年奉祥於禮至當事歲  
不逮魂歸墳墓 謹以清酌庶羞 哀薦祥事 尙饗

• 모년 모월 모일 아들 아무개는 아버지전  
에 고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  
여 삼년을 모셔야 하오나 시속에 따라 혼  
은분묘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오며 이제 맑  
은술과 여러가지 음식을 공손히 전을 올  
리오니 흠향하옵소서.

※백일에 탈상할때는 奄及百日이라 하고 만  
일 화장시에는 魂歸墳墓를 고쳐서 魂歸仙  
境이라고 한다.

27 吉祭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五代孫○○○

敢昭告于

顯五代祖考某官府君

顯五代祖妣某封某氏 茲以先考 某官府君 喪

期已盡 禮當遷主人廟

顯高祖考某官府君

顯高祖妣某封某氏 親盡神位當兆

顯曾祖考某官府君

顯曾祖妣某封某氏

顯祖考學生府君

顯祖妣孺人金海金氏 神主今將改題世次迭遷

不勝感愴 謹以酒果 用伸虔告謹告

•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기가 다 되었으므로 신주를 사당으로 들이려고 하옵니다. 고조비는 가까움을 다하여 채천히 비하여야 하겠으며 고조비의 신주를 장차 고쳐쓰겠으므로 태의 차례가 율기게 됨으로 슬퍼하오며 술과 과실로서 고탘나이다.

※사당이 없는 지금에는 사용치 않음

28 莎草時 山神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幼學○○○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廣州李公之墓 塚宅崩頽 將加

修治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酒果 祗薦于神

尙饗

• 광주이공의 묘소가 무너지어 이제 다시

고치려 하오니 신께서는 잘 지키시고 도

우시도록 삼가 술과 과일로서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만일 묘는 고치지 않고 근방만 입힐때는

塚宅을 塋域으로 함

29 莎草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之墓 伏以 窆事已玄冬 未遑莎

築 今將修封 伏惟 尊靈 勿震勿驚

• 아들 아무개는 아비님산소에 고탘니다.

아비님 장사지낼때는 추운 겨울이라 황망

결에 축대와 사초를 하지 못하여 이제 장

차 다시 수리코져 하오니 혼령께서는 늘

라지 마십시오.

※장사때 때를 하지 못하였을때의 축

30 改莎草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之墓 伏以 歲月茲久 草衰土圯  
今以吉辰 益封改莎 伏惟尊靈 勿震勿驚

• 아들 아무개는 아버님묘소에 고합니다.

세월이 오래되어 풀도 쇠잔하고 흙도 무

너져 이제 길한날을 택하여 다시 봉하고

사초도 다시 하려니 혼령께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사초를 했는데 안살아서 다시할때

31 改莎草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之墓 伏以封築 不謹歲久 頽圯  
茲涓吉日 將加修葺 伏惟尊靈 勿震勿驚

• 아들 아무개는 고합니다. 아버님묘소가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지고 퇴색되었기에

길한날을 골라서 다시 수리코저 하오니

혼령께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사초를 한지가 오래되어 묘도 크게하고

사초도 입히고 할때의 축

32 莎草後 山神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幼學○○○○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廣州李公 塚宅惟新 既封既莎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酒果 祇薦于神 尙

饗

• 아무날 아무개는 고합니다. 광주이공의

무덤을 새롭게 높이고 사초를 더 했으니

신께서 후환이 없도록 보호하옵소서.

33 莎草後 慰安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之墓 既封既莎 舊宅惟新 伏惟  
尊靈 永世是寧

• 아들 아무개는 아버님 묘소에 고합니다.

봉분을 더하고 떼를 다시 입혀 옛집이 새

로와 졌으니 혼령께서는 영세토록 편안히

계시기를 바라옵니다.

③4 莎草兼 立石時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之墓 日月悠久 墓地崩頽 茲以  
吉辰 改封莎土 仍立石物 以表瑩域 謹以酒果  
用伸奠獻 尙饗

• 아들 아무개는 아버지 묘소에 고합니다.  
세월이 흘러 묘지도 무너지고 하여 길한  
날을 잡아 묘소도 고치고 메도 입히며 같  
이 석물 묘지주와 표시하여 놓고 슬과  
과 일로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③5 具石物告墓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之墓 伏以 事力不逮 儀物多闕  
今具碑石 墓道 伏惟尊靈 永世是寧(是憑是安  
是憑是依)

• 아버지 장사지낼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갖춰야 할 의물이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비석을 갖추어 묘의 표시를 하고 도리를  
하였으니 혼령께서는 안녕히 계시옵소서.

③6 改葬山神祝(새로옮산 산신축)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幼學○○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廣州李公 宅兆不利 將改葬于  
此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清酌 脯醢 祇薦  
于神 尙饗

• 아무개는 토지신께 고합니다. 광주이공의  
묘소자리가 좋지 않아서 장차 이곳으로  
옮기고저 하오니 신께 잘 보호하여 주시  
기를 비오며 삼가 슬과 포해를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③7 舊山山神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幼學○○

敢昭告于

土地之神 茲有學生 廣州李公 卜宅此地 恐有  
他患 將啓窆 遷于他所 謹以清酌 脯醢 祇薦于  
神 尙饗

• 토지신이시여 이곳에 광주이공의 묘소를  
장만하였으나 우환이 있어 봉분을 열어  
다른곳으로 옮기려고 슬과 포해를 올리오  
니 흠향하옵소서.

— 恐有他患…합장하려고 하면 今爲合祔라

고함

③⑧ 舊山先仙祝(먼저 묘지의 선산에 고하는 축)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孫○○

敢昭告于

顯祖考學生府君之墓 曾以子學生府君 祔葬于此 恐有他患 將啓窆 遷于他所 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

• 할아버지의 아드님을 이곳에 장사지냈으나 우환이 있어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슬과 과일을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선산이 없으면 생략함.

③⑨ 啓墓祝(먼저 썼던 산을 팔려고 할 때)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葬于茲地 歲月茲久 體魂不寧 今將改葬 伏惟尊靈 不震不驚

• 아버님전에 고합니다. 이곳에 장사를 지냈으나 세월이 오래됨에 따라 혼체가 편안치 않아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④⑩ 遷柩祝(시신을 상여로 옮길 때)

今日 遷柩就輿 敢告

• 금일 널을 상대로 옮기고저 고합니다.

※거의 사용치 않음

④① 發靱祝

靈輻載駕 往卽新宅 載陳遺禮 永訣終天

• 혼령 상여에 실어서 새로운 묘소로 떠나는 예를 올리오니 편안히 떠나소서.

※현재 거의 사용치 않음

④② 山神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幼學○○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學生 廣州李公 建茲宅兆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以清酌 脯醢 祇薦于神 尙饗

• 토지신이시여 지금 광주이공의 묘소를 이곳에 세웠으니 신께서 잘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포해를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산을 다쓰고 산신에게 고함

④③ 神墓祝(묘를 다쓰고 읽는 축)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之墓 新改幽宅 事畢封塋 伏惟  
尊靈 永安體魄

• 아버지 묘소에 고합니다. 이제 새로 유택  
을 마련하였오니 혼령께서는 영원토록  
편안히 계시옵소서.

④④ 墓失火慰安祝(묘에 불이 났을 때)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之墓 伏以 守護不謹 野人失火  
勢成燎原 災延塋域 伏惟震驚 不勝痛慕 謹以  
酒果 恭伸安慰

• 아버지 묘소에 고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못해서 불씨가 불덩어리로 이루어 재난이  
묘역에 침범한 것을 미처 제가 수호를 잘  
못한 것이므로 아버님께서는 놀라신 점은  
비통하기 비할데 없으며 슬과 과일들을 올  
리고 위안을 드리려 하옵니다.

④⑤ 時祭時山神祝(시제지널때 산신에게 먼  
저고함)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幼學○○

敢昭告于

土地之神 某(초헌관의 이름) 恭修歲事于  
顯五代祖考學生府君之墓(顯五代祖妣孺人金  
海金氏之墓) 惟時保佑 實賴神休 敢以清酌庶  
羞 敬伸全獻 尙饗

• 아무개는 ○년 ○월일 토지신에게 고합니  
다. 토지신께서 오대조 할아버지를 향시  
보호하시고 편안케 하시어 슬과 음식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오니 흠향하옵소서.  
※이 산신축은 단오, 학식, 추석때에도 같은

④⑥ 時祭祝(一)(일명 묘제축이라고도 함)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五代孫○○

敢昭告于

顯五代祖考學生府君之墓 歲薦一祭 禮有中制  
履茲霜露彌增感慕 謹以清酌庶羞 祇薦歲事  
尙饗

• 절후가 바뀌어 서리가 내렸습니다. 봉분  
을 쳐다보고 그리워하는 마음 이기지 못  
하여 삼가 맑은슬과 음식을 올리오니 흠

향하옵소서.

※집에서 지낼때는 之墓를 뻐.

47 (其二)

維歲次云云(감소고우까지는 전과 같은)

顯五代祖考學生府君之墓

顯五代妣孀人金海金氏之墓 氣序流易 霜露歸

降 瞻掃封塋(집에서 지낼때는 家行祭儀) 不

勝感慕 謹以清酌 庶羞 祇薦歲事 尙饗

48 (其三)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五代孫○○

敢昭告于

顯五代祖考學生府君

顯五代妣孀人金海金氏 今以草木 歸根之時

迫惟報本 禮不敢忘 瞻掃封塋(집에서 지낼때

는 家行祭儀) 不勝感慕 謹以清酌 庶羞祇薦

歲事 尙饗

49 (其四)

維歲次云云(감소고우까지는 전문장과 같은)

顯五代祖考學生府君

顯五代祖妣孀人金海金氏 氣序流易 時維仲秋

迫感歲時 不勝感慕 謹以清酌 庶羞祇薦 歲事

尙饗

※시제 또는 사시제는 묘지에서 지냄이 근

본이나 지금은 흔히 집에서 지내는 문중

이 허다하다. 또한 축문도 문중마다 문안

이 다르므로 대표적인 문안을 4가지를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50 寒食祝

維歲次云云(감소고우까지는 일반축과 같은)

顯五代祖考學生府君之墓

顯五代祖妣孀人金海金氏之墓 氣序流易 雨路

既濡 瞻掃封塋 不勝感慕 謹以清酌 庶羞祇薦

歲事 尙饗

※한식때 묘소앞에 제사지낼때에만 읽는 축

으로 조상이 합장일때만 之墓를 다 쓰고

할아버지묘소앞에 제사지낼때는 할머니의

之墓는 쓰지 않음

51 秋夕祝(추석때 산에가서 지낼때)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之墓

顯妣孀人金海金氏之墓 氣序流易 白露既降

(九月九日이면 霜露既降) 瞻掃封塋 昊天罔

極 謹以清酌 庶羞 祇薦歲事 尙饗

※ 조부모축에는 昊天罔極을 고쳐서 不勝感慕라 하고 榜親에는 不勝感愴이라고 함.

아버지 묘소에 지사지낼 때는 어머니의 墓는 쓰지 않고 顯妣孺人金海金氏라고만 한다.

⑤② 亡親回甲祝( 돌아가신 부모의 회갑날 축)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子○○  
敢昭告于

顯考學生府君 歲時遷易 遯及回甲 生時有慶 歿寧敢忘 昊天罔極 謹以清酌 庶羞 式此奠獻 尙饗

※ 부모가운데 돌아가신 어머니 회갑 때는 顯妣孺人某封某氏(金海金氏)라고 함

⑤③ 尋墓慰安祝( 잃었던 묘를 찾고 고하는 축)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孝五代孫○○  
敢昭告于

顯五代祖考學生府君之墓 境失守護 歲已百餘 今茲啓驗 乃的幽誌 顯晦有時 喜且感慕 改築 旣莎 封域茲新 伏惟尊靈 永世是安 謹以酒果

用伸 虔告謹告

• 오대조할 아버지의 묘소를 세월이 백여년이 흘러 잘 지키지 못하고 잃었었으나 다시 찾게 되어 기쁘고 감격스러우며 다시 봉분을 쌓고 폐를 입히어 새로이 단장하였으니 혼령께서는 편안히 계시옵고 술과 과일을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⑤④ 山靈城隍祝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幼學○○  
敢昭告于

城內洞中(此山區內) 大山靈 敢臨感應 尊靈之前 部落人民 老少合心 供梁之誠 封酌封飭 盡心封恭 感應祝願 此山方內 洞中部落 猛虎推逐 賊人不入 時氣遠逐 塵垢消滅 自古以來 明感照臨 個個伏願 謹以清酌 伏願 尙饗

• 성내에 있는 산신령님 강림하소서. 부락민의 노소가 합심하여 술과 시루떡과 깨끗이 음식을 장만하여 정성을 올리오니 부락에 맹호와 도적이 들지 못하게 멀리 쫓아내고 질병을 없애고 부락이 밝게 융성하도록 개개인이 축원하옵니다.

## 맺음말

우리나라는 옛부터 孝와 禮를 崇尚하고 이에 뿌리를 두어 父母를 恭敬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東方禮意之國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러나 時代의 변천에 따라 禮 또한 변천하여 새로이 家庭儀禮準則을 制定하여 實踐토록 要求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특히 祭禮란 祖上에 대하여 報恩과 感謝를 나타내는 禮儀凡節이며 조상숭배의 한 儀式이다. 또한 禮는 傳統文化이다. 그 本質을 계승하여 그 참뜻을 알아 忠孝思想을 昂揚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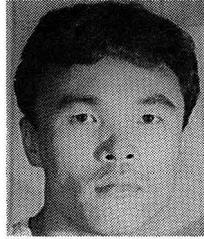
그리고 우리의 生活樣式에 따라 不知不覺中에 변천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禮의 역사적 지식이 풍부해야 하나 筆者는 다만 先人들과 祖上代代로 부터 전해 내려오는 文獻을 拔取하여 收錄하였음에 文字나 內容面에서 誤字와 未洽한 점이 많으리라 여겨진다.

더구나 門中마다 전해 내려오는 祭文이 각각 다르므로 여기에 收錄한 祝文은 參考資料가 되었으면 多幸이라 여겨진다.



## 제5회 향토문화상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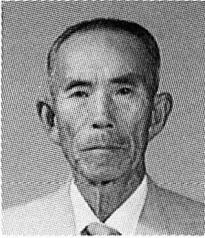
〈연극부문〉

인제읍 합강 2리  
남 정 우

위 분은 인제에서 태어나 이 고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향토를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모범청년으로 평소에 말이 없고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일에는 솔선하며 소신껏 책임을 다하는 자입니다.

예술의 불모지인 인제에서 제일 먼저 태동한 향토극단 은솔피 창단단원으로 제1회 공연때부터 제11회 공연이 되도록 한번도 빠짐없이 무대에 올라 주인공 역할을 하여왔고 공연 연습때마다 소품준비, 단원용 화단결에 중심적 역할을 하여왔고 특히 제11회 공연 “마리마리”에서는 연출까지 맡아 제9회 합강문화제 축하공연에 말없이 땀흘린 헌신적 공로가 많은 자입니다.

앞으로도 향토문화예술 진흥에 헌신적 공헌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아래 오늘도 계속 연구하는 자입니다.



〈전통예술부문〉

인제읍 함강 1리  
이 덕 환

위 분은 평소 운순후덕하고 조밀성의 성격과 천성적인 성품의 소유자로서 책임감과 타에 숭선하는 자로 항상 말없이 묵묵히 맡은바 임무에 열성껏 일하는 자임과 동시에 공동사업을 비롯, 단체적 행사에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동참하고 올바른 문제라면 백사불문 화합의 앞장을 서서 원만하게 일을 해결하는 자입니다.

특히 전통예술 발굴사업에 남다른 의욕으로 힘써왔으며 매년 개최되는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여하여 출연함은 물론 소품준비에도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앞장서서 알맞게 준비하는등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노력을 하여온 분입니다.



〈문학예술부문〉

인제읍 상동 2리  
장 정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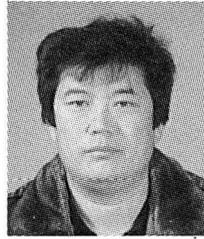
위분은 이고장에서 태어나 이고장 학교를 다니고 자라난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남다른 깊은 애향심을 갖고 향토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특히 예술방면에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소질성을 지녀 연극, 문학, 미술을 좋아하며 특이한 자질성을 배워 익혀온바 향토문화예술 행사에는 먼저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향토극단 은솔피의 단원으로 연출을 맡은바 있지만, 내린문학동인회 총무직을 맡고 매년 개최하는 예술문학예술행사에 그림, 시화전, 시낭송회, 문학강좌등 곳은 일서부터 어려운 일까지 먼저나서 소임을 다하여 와서 향토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 제 8 회 효행상 수상자



〈효자부문〉

인제읍 합강 2리

김 종 선

노령의 부모슬하에 단 독자로서 가사형편으로 진학을 포기하고 가사에 어려서부터 종사하던중 부모의 노령화로 부친의 신병이 악화되어 소생할 여지가 없다고 소문도 있었던것을 내조의 힘과 더불어 망방의 백약을 구하여 치성껏 곁을 떠나지 않고 음복케 함으로 부친병이 완쾌되어 건강을 되찾게 되었으니 이 어찌 효자가 아닌가!

주민의 신망도가 높고 자신의 수양제가의 신념이 두터운 자라 동네에서 리장직을 맡고 동네일은 굶은 일이나 좋은일이나 가라지않고 철투철미하게 해결해 나가며 관의 지시수행을 원만히 처리하는 모범된 리장이기도 하며 또한 새마을 지도자 중책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젊은 층에서 찾아보기 드문 모범된 사람 입니다.

앞으로도 경노사상 선양사업과 동네일이라면 소임을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이는 자입니다.



〈효부부문〉

남면 정자리 4반  
김 옥 화

위 분은 이고장에서 태어나 신남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포기하고 비록 여자이지만 내고장 농촌을 지키며 살겠다는 굳은 의지에 처녀 시절에도 어려운 가사에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며 수양을 겪은 자입니다.

특히 동네의 일에는 먼저 참여하여 일해왔고 경노사상이 투철하여 노인공경에도 효행을 다하는 자입니다.

특히 시집을 가서 시부모가 병석에 있어 항상 안타깝게 시부모를 생각하며 약을 구해 구안함은 물론 어려운 살림살이를 남자들 부럽지 않게 해결해 나가고 있고 농사일, 가정살림살이일, 동네일, 노인공경일, 모두 거침없이 척척 앞장서서 묵묵히 일하는 현 세대에 보기드문 자이기에 타에 귀감이 되도록 덕행이 뚜렷한 자입니다.



〈효부부문〉

북면 용대 1리  
윤 순 근

위분은 어려서부터 진학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웃어른을 돌보며 가정일에 열심히 일하여 왔고 웃어른들의 공경심과 노인공경의 경노수양에 깊은 관심으로 생활하여온 자입니다. 어려운 농촌에서 자라 시집을 가서 또한 시부모 섬기는데 지극한 정성과 뛰어난 덕행으로 효행을 다하고 있으며 경노사상이 투철하여 마을 노인들에 칭송이 다대한 자입니다.

물론 젊은세대에 볼수없는 근검생활과 가정일, 또한 동네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일은 소임을 다해 일해가고 있고, 특히 시부모가 앓을 못보는 불구자로서 그 지팡이가 되어 구안을 하는 효부로서 주위의 칭송이 다대하며,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될수 있는 뚜렷한 자입니다.



## 문화업무를 맡아보면서 느끼는 소감

인제군청 문화공보실  
최 동 선

### 1. 서론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꿈많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추억을 남기고 살아왔다. 나 역시 이중에 한 사람이란 인간이기에 어린 시절의 욕망은 남보다 크고도 많은 정치지도자, 사회복지가, 예술인, 발명가, 기업인 등으로 부푼 꿈들의 추억이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섭리와 주어진 임무에서 이제 나는 공무원이란 직업을 선택받아 공무에 맡은바 사명감을 다하며 지내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란 직업은 변할수없는 틀속이지만 그속의 다루는 업무는 전문성을 가지고 한자리만 지키며 다루는 공무가 아니라 이리저리 인사명을 받고, 가는데마다 다루는 업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를 두고 나개인의 느낀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나의 공무원 생활은 그다지 오래하지 않았지만 읍·면사무소와 군청을 근무하며 각기 다른 업무를 다루어 보았으나 지금 근무하는 문화공보실 문화업무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겠다.

### 2. 문화재 관리와 주인의식

현대 일부인들은 최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가지 물건들을 문화재로 잘못알고 왕왕 문화재로 지정 및 관리 해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라도 1차 책임자는 소유자나 관리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되어 있으나 문화재나 그 유사한 민속자료 정도의 것이 있으면 으레히 행정 관서에 떠 맡기려는 현대인들의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행동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며 한마디로 주인의식이 결여된 혈벗은 문화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과거사를 보면 사찰은 그 지역 신도들이 관리하여 왔고 문화재도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보수하고 관리하는 습성으로 그 맥을 이어왔으며, 또한 조상의 얼이 담긴 충효 행적비나 사적 기념물은 그 후손 및 지역주민들에 의해 현재까지 보존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인들중 일부인은 자기를 문화인이라 자칭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보호나 관리는 뒤돌아 보지않고 관에만 의식하면서 모든 질책을 가하려고 하는데 이는 너무나 나약한 주인 의식을 상실한 처사이다.

근래에 가장 문화재 도난 사건이 있어 전국에 찾아 달라는 호소문속에 나도 그에대한 공문서를 접하고 있다. 이는 조상을 능멸하고 자기만이 잘살아 보겠다는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우리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진다.

이제 우리 주위에는 재정상 어려운 여건으로 문화재의 가치성을 잃고 초야에 빛을 보지 못하고 방치된 곳도 있다. 흔히들 관광이나 산업시찰, 견학등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 할때, 스트레스를 푼다고 오락시간을 갖고, 현실에 앞서가는 문명의 산업터전을 시찰하여 돌아가는 시대의 시야를 넓혀 나의 생활과 연결을 시켜본다.

그러나 그중에 우리는 꼭 돌아 볼것이 조상들의 혼과 얼이 담긴 유적지를 돌아보며 그에대한 가치성을 다시한번 느껴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문화예술 부문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투자란 돈이나 화폐의 가치로 따지는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하겠다. 그러므로서 오늘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성숙된 문화국민으로 모든것을 아끼고 보호하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

나는 가끔 외지에서 문화재를 소개해 달라고 전화나 찾아오는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실무자로서 가끔 가슴이 설레이기도 한다. 우리 고유

의 문화재가 타인에 의해 훼손되지는 않을까하는 이유이다. 왜 같은 문화인끼리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물질만능주의 속에 개인의 사욕으로 없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나 이런일은 극히 드문 일이라 생각된다. 차체에 주지하고자 하는 말은 문화재 보호관리란 관계자나 일부인이 보호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보호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그 지역에 귀중한 문화재나 사료가 있으면 그 지역 주민이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리으로써 바로 문화국민이 될수 있고 그 속에 문화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선진국민이 될수 있다.

예로부터 그 민족이 번창하고 발전한 강대국은 문화예술이 찬란했었고 그 문화정신으로 자손이 현대까지 선진국민으로 세계에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잘 증명해 준다.

### 3. 문화재의 종류

문화재를 종류별로 나열하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4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고 다시 세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유형문화재** : 건축물, 서적, 고문서, 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고고자료임.
-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상 가치가 크게 있는 것임.
- **기념물** : 패총, 고분, 성지, 유물 포함등 경승지로 역사적 가치가 크게 있는것임.
-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 행사등에 관한 풍속·관습에 이용되는 의복, 기구, 가구등으로 인간생활에 있어 우리 선조들의 얼이 담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임.

이상으로 문화재 종류와 자료의 타당성 가치관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니 우리 주변의 문화재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한번쯤 시간을 갖는것도 좋으리

라 생각된다.

#### 4. 결 론

지난 20여년간의 문화 정책에서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창조력의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과 그 기반의 확산에 주력해왔고, 연계하여 작년에 문화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이라는 정책목표로서 1990년대의 새로운 문화 전략으로 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방향전환은 문화국민이 누릴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문화보급 운동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문화정보의 확산에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때를 발맞추어 말단에는 문화 업무를 다루는 나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문성 있는 문화업무에 사명을 다하여 위와같은 정부시책의 기능 전개에 손발이 되어야 하겠고, 국민들은 새시대에 맞는 다양한 취향 문화의 개발에 주인의식을 갖고 나서야 하겠다. 그러므로써 우리의 미래는 밝아지고 삶의 지혜가 어느나라 국민보다 수준높은 국민성으로 주목될 것이다.

이상 나에게 주어진 문화업무를 맡아 보면서 느낀점을 나름대로 기술하였으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함을 자책해 보면서 혹시 잘못된 점은 이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合江文化祭에 대한 小考

인 제 문 화 원  
사무국장 이 만 철

### 1. 향토 문화축제의 개념

우리 민족은 옛부터 씨족사회 또는 마을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 왔으며 한편으로 자연을 정복하지 못하였을 때에 경이심과 공포심을 갖고 자연물인 동물과 식물 또는 물과 바위 등에 정령(精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어왔다. 그리고 삶의 방법으로 안일무사와 소원성취 또는 감사의 뜻으로 이 정령을 갖고있는 자연물들을 선택하여 제를 지내왔으며 특히 마을 감사제는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서로 나누어 먹고 춤과 노래 또한 놀이로서 하루를 즐기며 상호 공동체 조성을 모색하는 뜻으로 축제행사를 행하여 왔다. 이것이 오늘날의 각 지역마다 보편적으로 전개되어 행하여지는 향토 축제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향토 축제라함은 그 지역마다 전통적인 문화적 특성을 효율적으로 표출시켜 먼저 수호신에게 감사와 안일무사속에 변영을 비는 제를 지내고 다음으로 지역민의 공동체 조성속에 단합을 융화시키며 향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놀이와 경기로 축제 행사를 갖는것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향토축제 행사는 80년대 이후부터 보편화되어 전국에서 지역마다 한건 이상의 향토축제 행사를 지내고 있는데 89년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소책자 통계로 보면 325가지로 집계되고 있다.

## 2. 합강 문화제 연혁

우리고장 향토축제인 제1회 합강문화제가 83년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처음으로 추진되었다. 10월 27일 17시를 기하여 전야제로 합강정에서 각 읍면 기관단체장 및 지역유지 약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군수님(김재수)이 제주가 되어 인제군 수호지신에게 군민태평과 일치단합으로 지역번영을 기원하는 제를 지냈다.

제2회 합강문화제는 84년 11월 5일 역시 지난해와 같은 합강정에서 똑같은 방안으로 제를 지냈으며 늦가을에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나서 재해를 많이 입은 관계로 축제행사는 개최하지 않았다.

제3회 합강문화제는 85년 9월 9일에 전야제로 합강정에서 군수님(최옥선)이 제주가 되고 제전위원장에게 복면에 거주하는 김진용(당시 문화원장)씨를 비롯, 관내 유지 약 60여명이 모여 전년과 같은 방안으로 제를 지냈으며 이튿날 10일에는 예술행사로 노래자랑, 합창경연, 사생실기대회, 주부백일장, 뗏목놀이를 시연하는등 축제행사가 처음으로 개최되었고 체육행사로 순수한 전통 민속경기인 목도, 그네, 씨름, 계주, 줄다리기, 벼섬나르기, 불씨만들기등이 약간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인제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제4회는 86년 아세아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이에따라 인제를 지나는 성화봉송의 날을 맞추어 9월 17일에 전야제를 지내고 이튿날에 전년도와 같은 예술행사와 순수한 전통 민속경기로 체육행사가 개최되었고 다음날 18일까지 농악놀이 및 봉송행사로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제5회 합강문화제는 87년도 9월 9일에 민속놀이 행사로 인제 숲둔골 숲굽기 놀이만 인제고등학교에서 시연되어 축제행사의 분위기를 잃었고 전야제로 합강정에서 군수님(김세기)이 제주가 되고 추진위원장인 김진용씨를 비롯, 약 60여명의 유기관및 사회단체장과 지역유지분들이 모여 제를 지냈다.

## ▣ 제언

제6회는 88년 세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유치되는 관계에 따라 우리고장을 지나는 성화봉송의 일정을 맞추어 9월 10일에 전야제를(제주·군수 이돈섭) 지내고 이튿날 11일에는 성화봉송의 참여관계로 체육행사 및 예술행사는 생략하고 성화봉송이 지나는 각 읍면의 요지마다 농악놀이가 추가되어 군민의 많은 참여속에 흥겨운 춤가락으로 성화봉송을 맞이하였으며, 군축교에서부터 부평 선착장까지 뗏목시연이 축제행사로 개최되어 옛 교통수단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제7회는 우천으로 인함과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관계로 89년 9월 16일에 합강정에서 전야제(제주·군수 고제현)를 지냈으며 군민 축제행사로 문화관에서 노래자랑과 연극공연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튿날 예술행사로 백일장, 사생대회, 같이남박 민속시연과 체육행사로 육상, 축구, 배구, 씨름, 테니스, 줄다리기, 벼섬나르기, 마라톤 등이 개최되어 가일층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제8회는 90년 9월 9일에 전년과 같은 방법으로 군수님(고제현)를 비롯, 추진위원장 이승호씨와 유기관 단체장 및 지역유지 약 60여명이 모여 합강정에서 제를 지냈다. 문화관에서는 노래자랑 연극공연을 비롯하여 예술행사로 사진, 미술, 서예, 수석전시회가 향토예술단체 회원들의 주관으로 개최되었고 비봉조합 2층 회관에서 시낭송회와 문화강좌가 개최되어 축제분위기가 고조 되어가는 면모를 보였다.

제9회는 91년 9월9일에 전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초헌에 군수님(반종한) 아헌에 군의회장(정재학) 증헌에 문화원장(오정진)이 되어 합강정에서 제를 지냈다. 이어서 문화관에서는 연극공연이 개최되고 사진, 미술, 수석, 서예전시가 개최되었으며 아미산 공원에서는 내린문학동인회의 주관으로 백일장이 개최되었고, 충혼탑에서는 석이미술동호회 주관으로 아동미술 사생실기대회가 관내 유치부, 초·중·고 학생들의 성황을 이룬 참여속에 개최되었으며 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군민 노래자랑이 연예인 다수를 초청한 가운데 유쾌하게 개최되어 축제분위기가 해가 바뀌어 갈수록 높아가는 면모를 보이면서 제9회까지 합강문화제에 이르게 되었다.

### 3. 합강문화제의 기능확보

#### 1) 제례행사

첫째, 우리 인제군은 지역 특성으로 보아 산악문화를 전통적으로 이루어 온 고장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선조들은 산이 많은 특성으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삶의 영유권을 찾아 생활을 이루어온 지역의 특성이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멧목, 심메마니, 솟굽기, 배만들기 등 전통민속 생활상을 발굴하여 재현한 것이 산간문화의 발원지라는 특징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고장 주위에는 어떠한 산들이 있는지 대략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산맥의 등뼈인 태백산맥이 서해에서 약 200km지점 동해안에서 약 15km지점에 남북으로 뻗었으며 또 다시 북쪽으로 금강산(표고 1,638m)이 있고 북동쪽으로 설악산(표고 1,708m)이 있다. 그중 설악산은 동쪽으로 급경사를 이루어 영동(속초, 고성, 양양)으로 기울어졌고 서쪽으로 완만하게 명소의 경관을 이루며 우리군(내설악)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태백산맥에서 대암산맥이 내려와 기룡산과 아미산으로 이어졌고 오대산에서 내려와 방태산 한석산 비룡산 팔봉산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풍부한 산림자원과 관광자원을 형성하고 있는 설악산의 전통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설악산의 지질은 대청봉 부근을 제외하고는 화강암의 지질로 되어 있으며, 신비하고 웅장한 속에 경관이 매우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일찍이 신라 중엽부터 많은 사찰이 들어서 불도를 넓혀온 곳이며 일제시대 만해 한용운 독립투사가 불도를 닦으며 구국의 정신을 수련한 곳이기도 하며, 또한 고려때 몽고병이 우리나라를 쳐들어 왔을때 우리 선조들은 이곳의 성(한계산성)에 머무르며 적을 무찔렀던 구국의 항전터이기도 하다. 근래에도 정치하던 지도자가 전국의 요지를 버리고 이곳의 사찰(백담사)을 택하여 은둔하며 세속의 회계와 정서적 수련에 임하였던 곳이다.

## ■ 제언

그뿐만인가. 명소와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사시사철 등산을 비롯한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동해로 이어지는 입문 관광지로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이 있어 관광차량과 생활수단으로 이어지는 차량들이 수없이 넘어다니는 요지이다. 그러므로 이면에는 인명사고가 어느곳보다 많이나는 곳이기도 하다. 험준한 등산길을 오르다가 또는 암벽을 타다가는 사람이 죽고 령을 넘는 차량들의 교통사고가 많이아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번 백담사를 다녀가던 버스가 군축교에 추락되어 대형사고를 냈고 한계령을 넘어오던 관광버스가 장수교에서 전복되어 수십명의 인명피해를 냈던 사고가 매우 큰 사고였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체가 살아 숨쉬며 찾아드는 곳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며 또한 우리 고장을 지켜주는 설악산의 정령을 우리는 방관하여 볼수만 없다. 민속학자들에 의하면 신라시대때 대사, 중사, 소사로 나누어 제사를 지냈는데 설악산이 소사를 지냈던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또한 설악산신은 단군의 조상 “마고산신”이라는 여신으로 전해오고 있다. 수렴동 대피소를 수십년동안 지키고 있는 이정수씨도 자주 꿈에 하얗게 의복을 입은 여신이 나타난다고 하는말을 본인은 들은바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서 서술한 여러가지 명맥을 종합해 볼때 설악산신을 수호신으로 모셔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향토 축제일인 합강문화제 전일에 이 수호신을 모셔서 제례를 드리는것을 필자는 합강문화제 기능확보첫째 소고로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다시말해서 물은 생명체의 모체이다라는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지역 합강정이라는 곳은 내린천과 인북천의 물이 합하는 곳으로 신비의 정령이 깃든 곳으로 일찍이 조선시대부터 전국의 중심지역이 되어 강원도의 26관(도지사 및 군수)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곳이다. 또한 한강을 비롯 소양강의 최상류 지점이며 발원지이다.

이러한 자연속에 전통이 무수히 담겨있는 이곳의 정령을 우리는 수호신으로 모셔야함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이 또한 향토축제 행사 전일에 합

강정 용왕신을 모셔서 제례를 드리는것이 뜻깊게 생각된다. 그렇다면 산신제는 한계산성 위 천제단에서 지내는 것이 뜻이 깊고 용왕제는 합강에서 지내는 것이 뜻이 있으며, 이어서 두신을 합동으로 봉안하여 아미산공원 또는 기타 적당한 장소를 택하여 대제를 지내는것이 합강문화제 기능 확보 소고로 표현하고 싶다.

## 2) 문화예술행사

먼저 축제행사로 문화예술 행사가 주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1년에 한번 군민이 모여 감사의 뜻과 지역 발전속에 영원한 번영을 위한 제례를 수호신에게 드리고 한편으로 향토심을 고취시키고 공동체 단합을 위한 축제 문화행사가 하루가 모자르도록 짝 매운 시간속에 즐겁게 흥겹게 다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와 중년과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이어져야 되고 전통적인 민속놀이 행사와 예술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충분하게 뒷받침 되어야 하겠다. 또 이에 따르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2년째 문화관을 이용하여 사진, 미술, 서예, 수석전시가 개최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작품을 좁게 붙여 전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현관을 이용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 행사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겠끔 조성되어야 하겠다.

## 4. 결론

합강문화제가 향토축제로서의 그 기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향토축제의 으뜸가는 기능이 바로 군민 상호간의 공동체 조성감이며 향토에 대한 자긍심, 즉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을 재론하면서,

첫째로 제전 행사를 전자와 같이 활성화하여 기능을 회복시켜야 하며

---

## ■ 제언

---

이는 합강문화제의 품격을 높이고 풍속을 바르게 하며 군민에게 신성성을 의식케 함으로써 정신적인 유대와 문화를 형성하게 할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문화예술 행사가 축제행사의 주가 되도록 기능을 높여야 하겠다. 다시말해서 이기고 지는 승부에 집중된 체육행사는 군민 상호간의 이기성으로 공동체 조성감의 방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민이 함께 어울려 정서와 오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가 주가 되어야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인 행동으로 공동체 단합의 조성이 잘 성취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관계성이 깊은 사회단체 및 예술단체 회원과 추진위원회의 사전에 깊은 전형적인 기획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상 합강문화제 기능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몇가지 추려서 제언하였으나, 내용과 가치성이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소고임을 읽는 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아무쪼록 합강문화제 행사가 좀더 좋은 방법으로 향상되어 향토축제 행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향 투 문 예



경

향토문인 **최 병 현** 씨 시인등단

축



최 병 현

1946년 강원 인제 출생/1989년 인제군 문화상(문학)수상/  
1990년 인제군 지명총람 집필(인제문화원 발행)/현재 「내린 문학」동인회장, 「광술시낭송회」동인, 인제군의회사무관 근무.

音 樂

수만 마리 나비들이  
 날아 오르고  
 물에 오른 생선으로 퍼덕이다가  
 미루나무 잎잎에  
 반짝이는 햇살이다가  
 성령처럼 컷전으로 어깨 언저리로  
 흘러내리다가  
 근거도 없는 바람으로 몰려 와  
 몸살나게 하다가  
 손끝마다 풀려나는 나의 母音  
 바닷가에서는 파도를 다스리다  
 증발하는 수증기로 꿈 속을 넘나들고  
 소나기로 쏟아져, 어머니  
 음성으로 나를 다스린다.

## 아내의 마음

내외만 시는 게 안스럽다며  
맘씨 고운 이웃이 보내온  
蘭을  
죽였다 살렸다  
밤낮으로 정성들여 한 삼 년  
기르다가  
내가 蘭이 되었는지  
蘭이 내가 되었는지  
  
蘭이나 기르며 살라 하던  
아내  
여보! 꽃이 폈어요  
  
우리 蘭이 꽃을 피웠어요  
자식이나 본 듯이  
기뻐하는 아내도  
난초꽃을 닮아서 환히 웃지만  
흰 머리가 성성한  
아내를 보면  
왜인지 미안하단 생각이 든다  
蘭에게도 미안하단 생각이 든다.  
  
이제사  
나는 아노라  
아내의 질투는 질투가 아니라  
눈으로도 볼 수 없는  
무게로도 잴 수 없는  
觀音같은 사랑임을….

## 交 感

그대  
다정한 한 마디  
말이 없어도

내게로 쏠리는 풀잎  
눈짓 하나로  
이슬을 털어내고

백목련 병그는  
四月의  
아침.

## 離別 뒤에 남는 것

그저

허전합니다

허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빈 그릇일 뿐입니다

아픔일 뿐입니다

바람일 뿐입니다

버려진 악기입니다

停止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는 것은

미련이 아니라

잔잔한 湖水입니다.

## 콩밭 김매기

우리집 콩밭에는 지금도  
아랑마다 아버님의 휘파람 소리가  
스멀거린다

이랑 끝까지 빠져나간 휘파람 소리는  
밭뚝배기 돌배나무를 기어 올라  
잠자는 매미를 깨운다

자지리지게 우는 매미 소리는  
三伏 더위에도 시원한 바람이 되어  
콩밭 이랑마다 일렁거린다

해 떨어진 콩밭에는  
아버님의 휘파람 소리만 남고  
아버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나는  
내일부터 내가  
아비가 되어서 콩밭을 매야 한다.

## 이야기가 그리운 날

대나무 숲에는  
천개의 귀가 있다  
만개의 귀가 있다

대나무 숲에는  
천개의 입이 있다  
만개의 입이 있다

친구여!  
오늘같이  
이야기가 그리운 날은  
대나무 숲으로 가자.

## 눈 내리는 날

하늘이 내려와  
내 눈썹 부근에서  
가루로 부서져 내린다

땅이 부풀어 오르면서  
하늘과 만난다

만남이 가까운 만큼  
더 외로운 새  
억조이는 아픔으로  
날 수 없는 새

어딘가 날고 있을  
또 한마리의 새를 향해  
오늘도  
하늘바라기로 서 있는  
슬픈 눈의 새 한 마리.

## 가슴에 이는 바람

내 가슴에는 언제나  
바람이 인다

오늘 새로 부는  
바람 아니라  
한 이십년 전 쯤부터  
부는 바람

불어 가는 바람 아니라  
불어 오는 바람이야

눈물나게 시린  
四月이면  
백목련 병그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바람이야  
백목련 지는 아픔으로  
떠나가는 바람이야.

## 星 夜

여름밤의 하늘은  
온통  
만개한 안개꽃이네

새댁의 꿈을 엿보듯  
들여다 보면  
아스라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네

사랑이 일렁이네  
꽃물결이네

빈 마음으로도 넉넉한  
사랑을 나눌 수 있네  
나도 따라 꿈 속으로 잤아드네.

시 심사평 / 최병헌의 작품에 대하여

교감과 상징의 새 시인

최병헌씨의 시작품 「음악」과 「交感」, 「콩밭 김매기」등 一聯의 작품을 묶어 우리 시단의 신인시인으로 선뜻 내세운다.

이 신인의 시심세계에는 절제된 哲理를 골격으로 삼은 淡素한 빛바람이 등불처럼 빛나고 있다. 워낙 절제되어 다스려낸 시적우언(萬言)이라 할까. 교감으로 걸러내고 推察한 비유(比喩)로서의 알레고리(allegorie) 단순화시킨 서정성의 상징수법이기에 때문에, 마치 고향의 어떤 모습속이라도 드는듯한 감응을 고스란히 지니게 해 준다.

이것은 상징적 교감의 시세계라 일러도 좋고, 교감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상징적 알레고리의 시세계라 하여도 무관하겠다.

그의 이같은 교감과 상징의 소박한 詩化는 수채화風의 敍景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작품의 내면에 드리운 말씀의 깊이는 조요(照耀)하듯 빛을 통기는 함축된 시로서의 철리를 삭여 승화(昇華)시키고 있는 것이다. 「음악」이나 「콩밭 김매기」 「가슴에 이는 바람」이 이를 잘 증시(證示)해 준다 하겠다.

그러므로 잡담하거나 과장된 허장성세는 최병헌의 시작(詩作)세계에 서는 하나같이 거세(去勢)가 되고, 오히려 복합이 된 교감과 상징으로서의 고운 시세계가 이 시인의 품안에서 환한 정겨움과 知的感性으로 단순화되어, 읽는이로 하여금 그리움의 불빛 안으로 나직히 들게 만든다.

흔히 서정시인이다, 농촌시인이다, 주지적(主知的) 상징시인이다, 뭐다 하고 한 시인의 특성을 표현하기 쉽게 규정짓기에 앞서, 나는 이 새로운 시인을 진실에의 哲理를 뼈대로 삼는 절제(節制)의 시인으로 등단시키는 데 거듭 미덥기만 하다. 빛의 영광을 아로새기는 시인으로 빛나길 빈다.

(정공채·이문걸)

# 광 야

吳 川 石

광야에 서보라  
호을로 왔다  
홀로 가나니

본래의 모습 알려거든  
광야에 서 보라

그 무엇도 갖인것 없이  
漂漂히 서면

그때  
너는  
알리라

## 나 그 네

吳 川 石

나그네 길에  
어머니!  
목마른건 사랑

손에 손잡고 건너가  
영원히 살립니다  
영원히 살립니다

흐르는 인생길  
하나 둘 버리면서  
어머니!  
홀가분하게 가립니다

사랑하며  
사랑하며  
영원히 살립니다  
어머니!

서로가  
걱정해 주고  
감싸고  
위로하며

저승의 강언덕에  
사랑의 다리 놓아  
무지개 같은  
무지개 같은  
사랑의 다리 놓아

## 꿈

吳 川 石

나의 이 소박한 꿈이 이루어 질까?

단풍철이면 自家用的 물결이 넘쳐 흐르는, 나라 第一의 觀光名所 雪岳의 관문 麟蹄에서, 허리가 부러질듯 비지땀을 흘려야 별로 所得이 없는 農夫들과 살을 부비며 살아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만이 아니라, 가난한 우리 농사하는 소박한 사람들이, 물결쳐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지은 농산물을 가공 조리하고 또는 포장해 팔아 남부럽지 않게 같이 잘살아보는 꿈 말이다. 몇일전 나는 참으로 가미한 이런 詩(?)를 썼다.

## 농 부

윤사월 긴긴해를  
진중일 구부리고 일하다  
일어서려면 기억字의 허리가  
퍼지질 않는다

하다 못해  
식모살이로 라도 떠난다는  
농담조의 안해는  
그을린 얼굴이 반쪽이다

하늘 한번 쳐다볼 틈도 없이  
일에 쫓기며 가꾼 곡식과 채소

팔려면 수입농산물이  
덜미를 누른다  
어데다 하소해야 하나?  
농촌 총각 장가 못가  
자살하는 세상

뭇찾이경쟁 집어치우고 살려해도  
공과금이다 교육비다...  
하여 못배겨난다.

“농사가 自由롭긴 하지않느냐고요?”

말 마시오  
작물을 가꾸는것이 모-두 때가 있어  
늘 일에 쫓기며 산다오  
품을 사서 하려해도  
일손이 귀하고  
타산이 맞이 않는다

사람 사는 것이  
한바탕 볍아치다 끝이 난다더니  
제정신 못차리고 볍이우다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라?

땀흘린 만큼  
제 값을 받는 세상  
내 위에 내人生의 키잡은 분들  
입버릇처럼 만든다는데  
조금만 값이 뛰면 수입해 오고

푹값되면 수매 비축 어찌고  
우물 우물 넘기는데

농촌 총각 장기는커녕  
평생을 농사일로 고락을 같이한 안해  
고되고 힘겨워 반쪽이 된 안해  
볼수록 치근 하구나!

허지만 여보!  
우리 끝까지 이 길을 갑시다  
복두갈구리손 흙문은 이웃과  
땀흘려 씌어서  
향기로운 새싹의 거름 됩시다.

이것은 하소연이요 몸부림이다. 그래서 꿈꾸게 된것이 바로 관광객을 상대로 우리가 손수 지은 농산물을 조리해 팔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적어도 관광차들이 설 수백평의 주차장이 있어야 하고, 일정규모의 식당과 토산품판매장 저장고등 수역원이 소요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아니 그 이전에 이런 시설이 들어설 천여평의 부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비싼땅은 못사고 하천부지를 어렵게 어렵게 공동으로 장만했지만 갈길은 험난허기만 하다. 하천부지에는 아무 시설도 할수 없기 때문이다. 군수님은 그것이 사실상 폐천이기 때문에, 당국에서 폐천조치후 불하가 가능한 것으로 말하지만, 건설과에 들려보니 천만 뜻밖에 찬바람이 분다. 하천법에는 두가지 불하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당신의 경우는 모두 해당 없다는 것이다.

공든탑이 무너지듯 가슴아픈 소리다.

내가 늦게나마 철이들어 상대적으로 가난한 농촌에 눈을 뜨고, 나와 내

이웃부터 살길을 찾아 노심초사 하기 십년세월, 농촌을 일으켜 세우려는 운동을 시작한 이래 많은 어려움과 이웃의 질시를 극복하며 자그마한 일들을 두레를 통해 이루어 왔다. 작목반을 만들어 마늘작목을 도입하고 양파, 생강, 봄배추, 토마토등의 다채로운 품목을 선정 입식하고, 공동으로 이십마력 트랙터를 구입, 경비를 줄이며 착실히 두레를 키워 왔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극히 소득이 낮은 농업과 관광서비스업을 연결시켜 소득을 높이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닥아오는 개방화시대에 대처하는 한편, 더불어 사는 人間본연의 자세를 되찾아 보려고 잠 앓오는밤 벼개를 돌우어가며 심사숙고 끝에 얻은 결론으로, 용기를 내어 부지를 물색끝에 우여곡절을 거쳐 간신히 작목반 공동으로 팔백만원의 거금을 주고 900평의 하천부지 점용권을 사들인 것이다.

장마가 지면 오염되지 않은 浦谷川이 짙차 흐르고, 그 유명한 여름냉골물이 가까이 있을뿐 아니라, 4차선도로 양쪽에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어, 한쪽에는 토산품판매장을, 또 한쪽에는 작목반원들이 각자 개발한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과 그 밑에 농산물을 저장하는 저온저장고를 지어 공동으로 활용하려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일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

먼저 폐천이된지 이미 오랜 부지지만 이러저러한 절차를 밟아 불하받아야 하고 부지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식당 농산물판매장 저장고등 수백평의 건물과 상당한 넓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데는 적어도 수억원의 그야말로 농민들에게는 천문학적인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생각할수록 아득하게 느껴지는 일이다. 그러나 만남을 무릅쓰고 가야만 하는 가시밭길이다. 쉬운일은 이미 누군가가 다 이루어 놓았다. 어렵기 때문에 못한 이 일, 이 소박한 나의 꿈, 나와 내 이웃들이 한데 어우러져 함께 잘 살아 보려는 이 꿈을 수없이 다가설 장애물과 험로를 헤치며 개척해 나아가자. 강한 의지와 바위같은 신념만이 이를 이룰 수 있다.

## 우리 사랑하는 딸 지애에게

박 주 화

네게 하늘이 열린지 16년이 되는 네 생일을 맞이하니 세상은 우리들에게 무수한 변화적 요소들만을 나열하는 요술쟁이처럼 서로 같음이 없고 잠시도 멈춤이 없이 우리들 곁을 알림없이 유유히 지나친다.

네 나이 이제 열일곱이 되는 생(生)은 꽃같이 곱기곱고 정신은 끝없이 깊은 미지의 심연(深淵)속으로 가라앉는 기구(氣球)와 같이 답답함과 불안과 압박의 연속으로 네 성장하는 온몸을 이سر러지게 조여오니, 점점 인생이 어렵고 복잡한 과정애의 함입이 시작하는구나.

이제 여러가지 세상사가 네 이성의 목을 조이고 네 자신이 자신의 갈등에 의해 네 가슴을 스스로 사정없이 활꺾기 시작하는 과정애에 들어선다. 생각하니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저 암연히 수수롭기만 하다.

우리 사랑하는 지애야!

참된 너의 가치와 존재를 위해서 너의 커가는 인생들을 다듬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네게 이런 바램을 갖는다.

먼 것과 가까운 것은 시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별할 것이며 따사로움과 차가움은 피부의 감각을 갖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옳고 그른것은 정상적인 눈과 귀, 그리고 입을 가지고 있다고, 모두 구별 할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네게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자신과 남을 알고 또 자신의 사고방식이 밝은 이성과 확고한 감성에 의해 빛어 창출해낸 진실된 삶을 추구하려는 사고에 의한 명철한 판단력이 항시 내재하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지애야!

모든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삶이 모두 인생이 아니다. 사람 다워야 사람일 것이며, 사람다운 사람이 영위하는 삶이 인생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생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네게 바라는것이 바로 인생을 영위하고 그것도 자신이 가장 참된 교훈으로 지혜를 가다듬어서 만들어진 이성과 행동에 이끌려가는 인생의 영위, 인생을 다듬어 키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아무렇게나 버려둔채 생리적 존재에 이끌려가는 그런 단순하고 저질적인 생존의 숨쉬기를 영위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

한 아람의 네 삶이 네 인생에 찬연한 꽃뭉음이 되어 이 도시에서 자연의 부름이 있을때까지 자신의 개성과 철학을 한껏 완성하여 주기 바란다.

지애야!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사상적 함입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에 치우쳐 바쳐준 자신의 보편과 타당성의 자아적 판단에 의해 만유(萬有)에 공동된 가치와 진실만의 투여정도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우리 딸 지애는 모든것에 섭렵(涉獵)하여 네 자신 지식의 수준 향상과 자아의 가치 함양에 열심하여라. 그렇다고 까다롭고 복잡한 핵 분열이라던가.  $E=MC^2$ 와 같은 상대성 이론을 충분히 알고 이해 하라고는 하지 않는다. 다만 네 자신이 주위의 환경에 함입되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자아적 발전을 향시 이룰수 있는 현실적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인생다운 인생을 영위하기 바란다. 현 사회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잘못된 젊은이들처럼 희열과 스스로의 만족을 추구하기에 급급하거나 쓸데 없는 만용에 젖어 자신의 젊음이 자신의 전 인생인양 착각하여 허우적대는 뒤틀린 인생을 겪고 있는것을 부러워 하지 말아라. 이들을 쳐다보기만 하고, 네 진정한 인생의 흐름결에 한낱 널려진 폐기물의 전시품들이라 생각하며 간과(看過)하여라. 아울러 언제인가 네 엄마가 아빠에게 보낸 편지에 인용한 대목을 기억하여라!

[케리 마이어스의 아버지의 기도] 중에서 “전약-나의 말과 행동으로서 정직은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도록 인도하여 주소

서. 나의 마음속에 비열함을 없애 주시며... 생략...”

위 문장에서와 같이 너의 정적이 너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오고, 항상 비열함을 외면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의 흐름을 조절하기 바란다.

사랑하는 지애야!

우리가 너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어 주기를 바라는것 같지 않느냐?

네게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든것이 우리 모두를 만족스럽게 하여 주고 있는데도...

하지만 이와같은 모든 바램이 우린 결코 부모의 욕심이 아니고 네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과정의 부분이기를 바란다.

지애야!

어렵고 힘든것, 그것이 네가 겪고 해결하여야 할 것이니, 마음은 네 모든 자신을 감쌀 수 있게 단련하고 네가 네 모든것을 달리 했을때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 잠깐 로마의 철인이며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말을 들어보자.

“너는 이 큰도시의 시민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나 지나온 날을 세지말며 그날의 짧음을 한탄하지 말고 너를 여기에 보내는것은 부정한 판관이나 폭군이 아니요, 너를 이리로 데려온 자연이다. 그러니 가라! 배우가 저를 고용했던 감독이 명하는대로 무대를 떠나는 것처럼 아직 연극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 하려느냐? 그 말도 맞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3막으로 극이 모두 끝날 수 있다. 그것은 작자의 소관이니 네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기꺼이 물러가라. 너를 물러가게 하는것 또한 선의에서 나온 일인지도 모르니까.”

위의 글에서처럼 자연의 섭리를 기억하려 들지말고 지애란 인간이 자연에 꼭 필요한 한 부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였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제작하여 5막으로 자신의 인생연극을 끝냈다는 지애가 되기를 우린 바란다.

지애야!

너무나 스잔한것 같지 않느냐? 하지만 넌 이 글을 이해 할것으로 안다.

---

## 향토문예

---

많은것, 참다운 교훈적 요소를 충분히 전하지 못하는 이 엄마, 아빠. 네게 미안함을 한없이 느낀다.

우리도 더 공부하여 너의 인생에 한 부분인 엄마, 아빠가 되기를 약속한다.

네 생일 진정 축하한다.

너와 너의 주위에 모든것이 정진되기를...

삼월 아흐래 구십일년 엄마, 아빠가 네곁에서...

## 산과 더불어

신남고등학교 1-2

이 연 주

바람이 불고 있다. 오월을 지나온 바람이 가슴속 깊은 곳까지도 후련하게 해주는 상쾌한 아침이다. 오랜만에 새옷을 갈아입고, 마을 뒷편에 자리하고 있는 동산으로 잠시 소풍을 나왔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뭉달처럼 야위어지는 목숨  
구름처럼 살아라 한다  
바람처럼 살아라 한다.”

마침 알맞은 시의 구절도 떠올라 읊어 본다.

山. 山은 언제나 일렁이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과 벽찬 삶에의 설레임, 그리고 희망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생각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山을 좋아하고, 山 속에서 느끼는 감정등을 이야기 하고, 노래하고 즐긴다. 때론 그곳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고도 한다. 항상 새로운 의미를 전달해주는 山을 벗삼아 살아온 이곳 사람들이 자랑스러워진다. 이곳은 온 사방이 정다운 山으로 둘러싸혀 있는 곳이다. 山은 우리에게, 우리는 山에게 서로 도움을 주며 정답게 살아가고 있다. 약속이나 한듯이 우리가 山에게 베풀어준 만큼의 댓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내가 山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의 여건에 맞춰서 즉, 산과 더불어 우리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환경이 달랐다면 어떨런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만약 바다와 근접해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자. 그것의 취향에 맞게 산에서는 나무를 베고, 묘목을 심고, 단풍을 구경하겠지만 바다에서는 고기를 잡고, 조개를 줍고,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 발을 담구어 보기도 하는

듯 생활양식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인제의 사람들은 산에서 느끼는 것처럼 순박하고 온화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것 같다. 이곳은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지방이라서 길이 꼬불꼬불하다. 특히, 신남과 인제사이가 그렇다. 이 도로가 일직선으로 되어있다면 편리하고도 빨리 왕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수많은 자원과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고장을 갈고 닦아야겠다는 정성 없이는 고장이 발전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왜 고향을 등지고 객지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농어촌에서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정든 고향을 떠나 살지 않더라도 원하는 생활이 비슷하게나마 성취된다면 부모님곁에 있는 일만큼 편한 생활이 또 있을까?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러기 위해선 교육기관과 여러가지 문화적 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전원도시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농촌 총각에게는 결혼상대자가 잘 나서지 않아 비만하게 만드는 그런 농촌이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곳에 사는 젊은이들 뿐만아니라 모든 이들이 내고장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존재가 된다면 좋겠다. 어머니의 가슴처럼 푸근하고 영원히 자리하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을 나름대로 보기 좋게 꾸며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쌍안경을 올바르게 보면 멀리 있는 것도 아주 가까이 보이면서 크게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가까운것도 멀리 보이고 또 작게 보인다. 다시 말하면, 같은 사물과 대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이다. 우리들이 대상을 아름다운 시선으로 보고, 아름다운 마음을 본다면 그 대상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우리들이 어떤 대상을 미움을 가지고 바라보고 뼈뺌 시선으로 바라보면 대상은 밋게 보이고 뼈뺌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 똑같은 물체를 그냥 눈으로 보았을때와, 오폭 렌즈를 통해 보았을때, 볼록렌즈를 통해 보았을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 친구와 형제들, 아니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이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주위의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는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인 감사의 눈으로 바꾸는 것이다. 오늘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불평하기 전에, 그 일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부정적이지 않는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배타적이지 않는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다. 더구나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다.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지나간다. 항상 산에 오를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좋다. 오늘은 그 어느때보다 맑고 깨끗한 분위기이며 정답게 느껴진다. 이러한 산을 벗삼아 앞으로 나의 삶을 계획할 것이고, 노력할 것이다. 오랫동안 산속에서 여유를 가져보니 나 자신도 새롭게 느껴진다. 시간의 흐름속에서 나라는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의미있는 멋진 삶인것 같다.

## 할머니의 교훈

인제중학교 3-1

이 정 훈

내게 제일 인자하게 대하시며 많은 가르침, 특히 내 고장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은 다름아닌 바로 우리 할머니이다. 지금은 집안 사정상 서울에서 살고 계시지만 전에는 우리 가족과 함께 사셨다.

나는 할머니와 있으면 포근한 냄새에 나도 모르게 할머니 무릎밑에서 잠든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만큼 할머니는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분으로 뚜렷이 기억에 남아 있다.

지금은 머리가 조금 커져 당시 할머니 속마음을 편치 못하게 해 드렸던 일을 마음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

할머니께서 우리 가족을 떠나 삼촌과 함께 살기 위해 떠나신다는 말을 들었을때,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할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항상 내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 사람은 물이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하고, 좋은 물이 있는 곳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는 말씀이시다. 그러시면서 우리 고장의 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른다. 설악산을 안고 있는 우리 고장의 강과 기암절벽의 계곡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이 이루어 내는 절경이 자랑스럽다고. 그 물이 우리의 심신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리라.

할머니께서는 틈이 나시는대로 나를 데리고 약수터도 많이 찾으셨다. 방동약수, 피레약수, 쪽발골약수의 특 쏘는 맛은 마치 청량음료같이 상쾌하여 자주 떠와서 냉장고에 넣고 마시곤 하였다. 할머니는 특히 약수를 마시면 소화가 잘된다고 즐겨 마시곤 하셨다.

또한 갯골의 얼음골 물도 할머니와 함께 아침마다 산책도 할겸 찾아다녔는데 그곳 물은 한여름에도 뼈가 저리도록 차가와 손을 담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추석이었다. 삼촌과 고모들이 추석을 지내기 위해 모두 오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할머니와 삼촌과 뒷마당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행복했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그리워지는 시절이다. 그런데 할머니는 문득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

“정훈이는 언제나 이 고장에서 살거지?”

나는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무척 갈등이 심했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은 후

“할머니 전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불쑥 말해 버렸다.

그러자 지금까지 바라보던 할머니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난 할머니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기 싫다고 외치고는 고등학교 풀밭으로 내달려 버렸다. 그리고는 풀냄새 가득한, 부드러운 풀밭에 드러누웠다. 한참 눈을 감았다가 떴다. 팔베게를 하고 앞 경치를 보았다. 웬지 푸른강, 산 그리고 하늘 그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 같았다. 옷을 털고 일어나 집으로 향했지만 할머니를 실망시켜 드린 죄송함에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발뒤꿈치를 들고 한 발, 두 발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때 난 할머니 눈과 마주쳤고, 할머니는 나에게 따스한 미소를 던져 주셨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참누히 가라앉는 안정감을 찾게 되었다. 곧이어 할머니는 다정한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정훈아, 이 할미는 네가 되도록이면 고향을 떠나 살지 말기를 바란단다. 요즘 세상이 좀 험악하냐? 사람에게 있어서 공부도,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법이란다. 옛말에 ‘신토불이’(身土不異)란 말이 있다. 즉 몸과 흙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란 뜻이야. 그러니 너의 몸은 즉 향토의 일부라 생각하고 언제나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도록 해야 해! 네가 아직 어려서 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좀 나이가 차면 이 할머의 맘을 이해해 줄 수 있을게다!”

하시며 변함없는 미소를 던져 주셨다.

그러나 할머니는 결국 집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 가시게 되었고, 세월은 흘렀다. 그후 난 머리가 커져 세상 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만큼 성장하여, 비로소 할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향토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이 지녀야 할 중요한 기본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슬픈 일이다.

특히, 요즘같은 생활 즉, 반복적이고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삶을 사는 현대인은 그런 와중에도 잠깐만이라도 고향을 생각하고 향토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삶의 보람과 따뜻한 인정을 갖게 될 것이다.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향토에 대한 그리움을 갖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획일적인 삶을 어린시절로 연결시킨 것은 바로 인간의 맥을 끊었다고나 할수 있을까? 도시의 매연, 소음속에서 향토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도 모르는 채 삭막이게 자라는 아이들에 비한다면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무엇보다 물맑고 공기좋고 장수대, 대승폭포, 십이선녀탕, 옥녀탕, 하늘벽등 설악산을 배경으로 한 좋은경치, 신라의 마지막 왕자인 마의태자와 그의 부하들이 왕국을 세웠다는 김부리, 갑둔탑등에 서려있는 유서깊은 역사, 학교운동장에서 펼쳐지던 흥겨운 같이남박만들기, 뗏목군소리, 숲굽기놀이등의 민속놀이….

이런 우리 향토를 호흡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며 나의 몸과 마음이 성장할 수 있었음을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잊고 지냈었던가?

이제서야 할머니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것 같고, 문득 나를 감싸주는 이 넉넉한 고향의 품이 그지없이 따스하고 푸근하게만 느껴진다.

이 사랑스런 향토를 언제나 잊지않고 사랑하는 인간미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신토불이(身土不異) 즉 몸과 흙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 살기좋은 우리 고장

월학국민학교 6-1

김연정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높고 싶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편하고 편한만큼 더 편하게 쉬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고장은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고 있고 싶은 마음이 한층 더 생기게 되는 그야말로 신기하며 오묘한 강원도이다.

이미 잘 알려져 다른 지방 사람들이 연휴때나 주말뿐만 아니라 1년내내 봄비는 곳이기도 하다.

옛날의 금수강산이 바로 우리 고장인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2년전 도시에서 이곳으로 전학을 와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지난번 방학을 이용하여 대구에 사시는 이모님 댁에 간적이 있다. 그곳에서 하룻밤 지내자 그 다음날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모부님과 병원에 가 보니 진찰결과가 나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강원도의 맑은 공기만 마시다가 갑자기 도시의 오염된 공기를 마시자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도시에서 살때 그런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공기가 좋은곳에서 살다 보니 도시의 대기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깨달았다.

이곳은 공기만 좋은것이 아니고 물이 매우 맑다. 어디서나 옥수같이 맑은물을 접할수 있다. 그뿐아니라 설악산 일대에 가면 약수터가 많은데 특히 오색약수터는 이미 잘 알려진 유명한 곳이다.

오색약수터는 도로변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경치가 절경이라 지나는 관광객이 꼭 한번 들르는 곳이다.

약수터에는 많은 사람이 와서 기념 촬영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

시며 몸이 약한 사람들은 요양차 찾아와 건강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기도 한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산이 많아 광물과 임산자원이 많이 난다. 광물중에는 특히 석탄과 석회가 많이 난다. 이것이 커다란 자랑거리이다. 임산자원은 버섯, 산나물, 목재등을 얻는다. 빼놓을 수 없는것은 공해에 전혀 피해가 없는 달콤한 벌꿀이다.

산이 많아 좋은점으로는 관광자원이 많은 것이다. 내가 작년에 걸스카우트 활동을 할때 여름방학에 단체로 야영을 장수대로 갔다.

장수대는 과연 장관이었다. 저 멀리는 계곡에서 물이 굽이쳐 흐르고, 바로 앞에는 차디찬 물이 흐르며 옆에는 커다란 바위가 듬직하게 우리를 맞았다.

나와 다른 대원들은 바위에 앉아 점심을 먹은다음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어찌나 물이 찬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다시 뛰어 나오기도 했다. 또 물위의 바위에 올라가 햇빛을 쬐기도 했다. 우리 일행 외에도 야영은 사람이 많았다.

울창한 숲에 텐트를 쳐 놓은것이 꼭 한쪽의 그림 같았다. 이곳 장수대는 입장료도 매우 싸서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작년에는 가족끼리 외설악 어느곳 맑은물이 흐르는 곳에 자리잡고 주말을 즐겁게 지냈다. 냇가에 앉아 밥을 지어먹고 물장구도 치며 바지를 걷어 침병침병 물속에서 걸어 다녔다.

그 밖에 가보지 못한곳은 장수대, 백담사, 설악산의 흔들바위 등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다. 음식도 값도 싸고 맛또한 좋은 막국수가 또 일품인데 막국수는 메밀로 만든 국수에 사골을 우려서 나온 육수를 부어 만든다. 관광객들은 우리 강원도에 오면 꼭 맛을 보고 간다.

식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앞에 새끼노루가 신기한듯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너무너무 신기했다.

어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어머니께서는 어린새끼가 불쌍하게도 어미를 잃은것 같다고 말씀하셨

다.

나도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산짐승이 이렇게 사람과 친숙하게 지내는 곳도 우리 강원도뿐일 것이다.

인심 좋고 마음씨 좋은 우리고장 사람들의 너그러움도 크게 자랑할만한 것이다. 게다가 문화수준도 도시 못지않게 발달되었다.

이제 도시로 나갈게 아니라 공해적이고 물맑은 이곳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더욱 아름답게 잘 가꾸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전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고 싶다.



## 재경 인제군민회 주소록

회장 김 원 칠

### 임원 주소록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직 업
고 문	김 용 호	384-2038	고려합섬회장 및 상임위원
"	김 영 진	794-0583	성지건설 상무이사
"	이 덕 성	694-7774	영등포여고 교사
"	안 순 덕	356-1466	한국여성개발원 사무국장
"	심 태 흠	542-5719	변호사사무실 사무국장
"	박 기 수	720-0031	한국보증보험 상무이사
회 장	김 원 칠	567-5758	대한교육보험(주) 법인영업2부장
부 회 장	김 동 수	823-2151	예비역대령
"	김 은 식	572-6116	무역회사 사장
"	김 찬 연	392-8450	서대문구 봉원동 42-18 2/5
"	엄 익 진	980-3759	도봉구 미아1동 839-295 9/2
"	정 송 암	476-8660	동아약품 영업담당이사
"	함 명 철	568-8427	MBC문화방송 사회2부장
감 사	김 도 경	324-1004	성가한의원 원장
"	최 춘 자	512-3834	서울 강남구 청담동 38-25

## ○재경인제군민회회원 주소록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강용운	서울 노원구 월계2동 677 1통9반 이옥진방		906-4431
고광득	경기 안양시 비산동 341 뉴타운APT 17통 209호	대한체육과학대학장	47-9402
고봉재	경기 광명시 철산1동 52-21 2통 3반		612-7609
고진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0-40		553-9967
강옥봉	서울 종로구 효계동 105-6		
계병삼	서울 중구 주교동 286-3		274-3074
김용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APT 7동 602호	前광업진흥공사이사장	783-3551
김용호	서울 은평구 대조동 216-22호	고려합섬회장, 고문	783-2038
김경용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한국방송협회 사무국장	736-7117
김수홍	서울 구로구 고척2동 258-9 26통 5반		612-7743
김은식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APT 8동 1507호	서울실업(주) 대표	572-6116
김원봉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9-19		324-0013
김원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		46-3921
김영진	서울 강동구 고덕동 499 주공APT 121동 109호		441-9617
김진국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종합청사	내무부공보관실 공보계장	731-2121
김우섭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7	명지학원재단사무국 재무과장	755-7281
김원철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0-14	대한교육보험(주) 법인영업2부장	567-5758
김진언	서울 노원구 하계동 우정APT 107동 503호	삼풍건설(주) 포장부장	977-6564
김홍낙	서울 구로구 시흥본동 840-22		891-7572
김천봉	경기 김포군 고천면 신기연립 101호		83-5375
김병곤	인천시 남구 주안1동 75-23 14통 3반		462-8598
김광영	서울 동대문구 장안4동 93-24 7통 3반		249-7223
김종식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8-118	변호사, 前서울지방법원판사	324-3445
김은성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3동 태양APT 다동 806호		212-2331
김만영	서울 중랑구 망우1동 396-33 동산맨션가동 201호		432-0781
김숙자	서울 도봉구 수유5동 498-13 21통 6반		902-3211
김화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277-13 2통 3반		845-0946
김순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APT 5동 303호		557-1457
김종구	경기 광명시 하안동 주공APT10단지 102동202호		43-8011
김정애	서울 동작구 상도3동 350-44 8통 3반		892-1597

## 출향인사동정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김 동 수	서울 동작구 대방동 343-1 대방APT 1동 131호	예비역 대령	821-2251
김 종 돈	서울 관악구 봉천2동 41-812 영화연립 422호	한양미니트 트레이러대표	877-4556
김 진 규	서울 노원구 상계5동 보람APT 210동 201호		933-5866
김 정 옥	서울 성동구 군자동 68-4		467-2339
김 도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1동 434-8		336-1038
김 정 순	서울 중랑구 면목7동 469-2		433-3950
김 해 성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 87동 1037호	(주) 럭키 상무이사	540-5932
김 광 영	서울 도봉구 미아3동 301-15	광고업	981-4689
김 득 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주공APT 312동 308호	인천교대 서무과장	461-4896
김 부 영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1115-13 세양주택 나동	KBS성우	699-6338
김 연 수	서울 노원구 창1동 287-4	(주)청방기획 실장	900-4666
김 옥 너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상도빌라A동 302호		815-8144
김 영 진	서울 용산구 동부이천동 민영APT 동402호	(주) 성지건설 총무이사	794-0583
김 영 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APT 10동 1006호		557-6843
김 옥 희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APT 202동 503호		573-0428
김 종 덕	서울 중랑구 망우2동 491-64	대흥슈퍼 경영	432-0356
김 장 준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동산연립A동 103호	농촌진흥청	42-8828
김 광 호	서울 도봉구 미아3동 309-54	청량리경찰서 경무과	988-8542
김 선 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APT 33동 402호		244-6552
김 성 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동 1153		2-9461
김 휘 정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5 좌원APT 4동 337호		396-7861
김 윤 숙	인천시 남구 주안동 80 현대APT 1동 1203호		428-1888
김 진 권	서울 서대문구 북과좌동 73-22		304-6624
김 성 숙	서울 성동구 증곡동 296-28		444-0864
김 한 영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문동 187-33		45-4632
김 경 덕	서울 송파구 송파동 97-36		412-8349
김 완 숙	충남 천안시 다가동 주공4단지 103동 201호		63-7834
김 상 호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49-5 서울가든 916호		212-4999
김 광 식	경기 성남시 수성구 창곡동 남성대APT 6동 202호	육군행정학교(중령)	400-1523
김 기 옥	서울 성동구 1가 191-2 2동 8만		461-1657

출향인사동정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김 봉 후	서울 동작구 사당4동 300-55	변호사 사무실	588-6814
김 천 규	서울 종로구 창신1동 226-55 16통 5반	운수업	764-6809
김 남 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공무원주공APT 807호 1212호	국회사무처	572-2705
김 호 석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419-6	문화방송국	841-8288
김 진 자	서울 강남구 반포본동 주공APT 8동 305호		599-2791
김 복 순	서울 강남구 개포동 4단지 주공APT 453동 103호		
김 정 애	서울 마포구 망원동 470-1 삼화빌라 102호		577-1595
김 동 인	서울 송파구 거여동 590-16	대경산업(주)	408-5661
김 성 국	서울 중랑구 면목 7동 668-55		434-0037
김 용 운	경기 양평군 양평읍 196-6 백운연립 다동 101호		72-5579
김 종 석	대전시 서구 변동 9-59		526-0012
김 옥 자	서울 은평구 갈현동 435-5	소라피아노	359-6065
김 정 화	경기 군포시 군포1동 360-8		53-5502
김 재 희	서울 은평구 갈현동 412-5		385-3801
김 춘 자	서울 중랑구 망우2동 509-50		495-9491
김 영 춘	서울 마포구 신수동 177-3		717-5840
김 음 전	서울 관악구 남현동 602 군인APT 1동 206호		587-4672
김 명 숙	인천시 북구 계산동 주공APT 102동 1310호		523-6525
김 영 기	서울 노원구 상계3동 85-110 9통 5반		936-6641
김 영 상	서울 강동구 명일동 270 삼익가든APT 10통 306호		482-9305
김 봉 열	경기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 417		63-6165
김 권 일	경기 안산시 원곡동 793-4		494-1075
김 경 애	서울 노원구 상계3동 85-110 9통 5반		937-5978
김 채 수	경기 안양시 안양5동 448-1 국제빌라 가동 201호		42-3576
김 계 봉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405-11	비산장로교회	3-9501
김 연 길	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47-4		849-1904
김 보 현	경기 안양시 안양3동 992-37		49-5138
김 채 철	경기 수원시 권서구 원천동 245-1	성민기업(주)	211-1259
김 형 기	서울 양천구 신정6동 목동APT 318동 402호		
김 채 석	서울 양천구 신정3동 1206-1		

## 출향인사동정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김수정	경기 안양시 석수2동 주공APT 206동 104호	현대가구점	
김성배	서울 구로구 독산2동 278-170		
김종선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6-42		
김순례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 383-3 26동 3반		
김봉수	서울 성동구 마장동 766-16 C동 17호		
김상우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17-21		
김종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94-261 6통 8반		
김승일	경기 광명시 광명5동 252-2		
김기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44-625		
김대원	서울 노원구 하계동 라이프미성APT 3동 402호		
김종희	경기 안양시 호계동 458	45-8525	
김진익	서울 노원구 상계동 685 보람APT 106동 1302호	개인택시 성동지부 골드리프 기린상회 청청파출소 주택은행 도곡동지점	
김영배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8-3		
김재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24 원석빌딩 306호		
김동배	서울 도봉구 미아3동 301-1		
김광수	서울 종로구 창신동 410-6		
김명호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7-13		
김수영	서울 도봉구 미아3동 125-13 9통 4반		
김승용	서울 중구 신당동 432-460		
김성수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APT 209동 1301호		
기준	서울 도봉구 방학2동 632-50		
남구희원	서울 중구 신당동 5가 85-84 13통 4반	906-5183	
남기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2-1 38통 4반	235-2321	
노수복	서울 구로구 구로5동 442-209	45-5365	
노재덕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108	(주)광선전자부장	716-0034
남성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APT 2동 1402호	협동사	676-8802
라원배	서울 강서구 화곡2동 385-16 삼익빌라 가동 105호	신경건설	694-4697
라순배	경기 수원시 권서구 고동동 226-80 2통 6반		45-4547
민충식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실APT 12동 901호	(주)삼천리주택	553-9328
민천식	서울 마포구 공덕동 7-197 23통 2반		712-3968

출향인사동정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민용식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67		833-9804
민백기	서울 강동구 명일동 201 78통 3반	성일섬유(주)	474-2403
문중천	서울 은평구 신사동 3-32		357-3408
문수월	서울 송파구 잠실5동 주공단지 주공524동 1501호		418-1052
박충환	서울 은평구 갈현동 406-30		386-3785
박석균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 394-8	한국자유총연맹국장	303-0628
박준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36-22	서대문경찰서	373-0442
박원길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570 114통 1반		2-1496
박태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3동 358-6	현풍상사	244-0651
박필녀	서울 중랑구 면목 7동 532-77 14통 5반		433-9890
박홍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2동 205-392		962-4958
박경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진흥APT 2동 206호		544-5887
박돈진	서울 도봉구 쌍문 2동 137-240	현대건설	905-3068
박주영	서울 서초구 방배동 834-18	농장경영	593-1383
박인섭	서울 도봉구 미아동 734-220	아람당(훈수예물)	980-5503
박종성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공무원APT 1509동 306호	도봉구청	
박상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33-27	시대안료상사 대표	332-6275
박순태	서울 중구 예판동 56-10	박건축물설계사무소	279-7255
박영자	서울 서초구 방배2동 528-109 14통 1반		583-2561
박홍로	인천 북구 효성동 뉴서울APT 201동 507호		524-8483
박경울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82-31	성동내장건설	584-6132
박순희	서울 도봉구 창1동 287-4		900-4666
박영노	인천시 북구 부개2동 23-20		525-1821
박정희	서울 도봉구 창2동 585-80 16통 25반		
박덕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3동 392-3 16통 1반		3-2665
박옥화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삼익APT 4동 1103호		533-2047
박수자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39-11		754-6623
박종열	서울 성동구 구의동 57-56		452-2019
박명덕	경기 부천시 성내1동 242-9 2통 2반		664-5357
박충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우고리 152		40-3485

## 출향인사동정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박수환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03-22 영운APT 다동 203호		
박압희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5-8	장터극수	536-2121
박숙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션수촌 103동 1803호		
박주성	서울 성동구 옥수2동 극동APT 2동 306호		
박춘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하APT C동 301호		
박갑천	서울 서초구 방배3동 479-1	성길사 부동산	
박종철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APT 707동 906호		
박용준	경기 포천군 관인면 중리 교동 4반		
박용대	서울 도봉구 쌍문2동 707-21		
박동중	서울 강동구 명일동 342-20 대원빌라 가동 202호		471-6480
박성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1동 140-5	식당운영	304-7366
박영신	서울 도봉구 수유5동 47-14		904-1758
박기수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1 광화문빌딩 4층	한국보험 상무이사	399-2727
방오섭	서울 관악구 봉천9동 635-352	대부전기 상임고문	877-1100
방인호	서울 중랑구 망우1동 381-1		433-3841
방오섭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2단지 주공APT 225동 404호		
방범윤	서울 마포구 망원동 425-42		
변중근	서울 중랑구 면목7동 353-13	상업	435-7811
변영규	서울 노원구 월계1동 494-9 27통 5반		
변순	서울 중랑구 망우2동 516-22		
변일무	경기 의정부시 가능1동 629-19 무림주택 나동 306호		3-6541
배한식	경기 안양시 수석2동 주공APT 216동 206호		47-8390
백순기	서울 서대문구 연화동 434-8	성가한의원	324-1004
백천혜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344-9 27통 3반	당국장 운영	246-7645
백성기	서울 강서구 방화2동 545-5 오화빌라 나동 107호	동우합설	663-6778
백필현	서울 성북구 성북2동 128-1	한국통신 전화번호부	745-4892
신영철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8	대한방직 이사	
신태일	서울 성동구 행당1동 122-10 10통 7반		292-7435
신산봉	인천 동구 만석동 9 5통 6반 조상호방		75-0750
신춘옥	서울 강남구 을현동 282-1 한익상방		403-8612

## 출향인사동정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신학봉	서울 강동구 천호4동 301-38	벽지대리점	478-6670
신용수	서울 강동구 천호3동 56-13	동창상사	484-4343
신광호	경기 동두천시 안흥동 99 8통 3반		62-5504
신영균	서울 용산구 한남2동 793 한남맨션 1동 203호		7950-2667
신현호	서울 중랑구 망우2동 489-29		
심영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9-1 장미타운 B동 210호	건축업	585-2042
심옥자	서울 강남구 역삼2동 영동APT 21동 106호		557-3704
심재신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81-52 7통 10반		
심상국	서울 성동구 자양동 220-20	성남국교 교사	444-3267
심영섭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APT 6동 502호	유창	
심일녀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32-31호		584-0132
심호자	서울 성북구 길음3동 499-66 12통 7반		981-6886
심귀암	경기 여주군 대신면 옥촌1리 381		82-7645
심상흠	서울 성북구 돈암1동 6-37 6통 5반		922-5657
심태흠	서울 강남구 청담2동 4-9 청화APT A동 102호	변호사 사무실	542-5719
심한준	서울 영등포구 신길2동 47-4		849-1904
심경희	서울 송파구 가락동 우성APT 5동 1407호		
심계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782-0111
사영환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79-64 17통 3반		354-6362
사산옥	서울 중랑구 면목 6동 64-32		433-2253
서한석	서울 도봉구 수유1동 57-111 6통 9반		980-9203
서성범	서울 강동구 삼일동 주공APT 343동 104호		474-5409
서효찬	서울 강남구 개포동 2단지 219동 502호		576-5951
서석찬	서울 중랑구 면목 5동 137-136		764-6809
서정란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3-11 5통 3반		413-8755
손영근	서울 성북구 장위동 94-1		911-3145
송병수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50		922-7599
송유식	경기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원미APT 6동 303호		83-0880
안희남	서울 구로구 구로 3동 구로APT 5동 58호		
안문숙	서울 은평구 녹번동 29-110 31통 5반		353-8592

## 출향인사동정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안청엽	인천 서구 성남동 199-8		373-0127
안병윤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832-32 30통 7반		833-3860
안순덕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 42-4	한국여성개발원국장	356-1466
안중관	서울 은평구 대치동 15-134 소영빌딩		352-1088
안중권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126-123 1층 1호		274-2651
양명석	서울 은평구 신사1동 5-46	서대문경찰서	353-2258
양승국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설악APT 3동 505호		537-3307
양명숙	서울 성북구 정릉동 704-31		914-2691
양성덕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강남성모병원	593-6121
양명진	인천 북구 갈산동 호정APT A동 206호		92-9139
양기석	경기 가평군 대성2리 383-70		84-2721
양일용	서울 관악구 신림8동 539-21 28통 10반		855-6607
양승희	인천 북구 십정동 514-30		424-4515
양정숙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2가 312-30 16통 1반		633-7694
어금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84-8		633-0059
엄홍열	서울 강동구 둔촌동 현대2차APT 101동 706호	한국보험공사	477-3462
엄익진	서울 도봉구 미아1동 839-295 9통 2반		
엄영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삼익APT 2동 503호		676-4543
엄규래	경기 부천시 원미동 177-132	관악구청	814-8017
엄성희	서울 강남구 개포동APT 202동 503호		
오계월	서울 강동구 성내2동 281-10		474-2228
오용국	서울 송파구 방이동 주공APT 6동 1503호		403-3625
오규철	경기 송탄시 신장2동 10통 3반		4-8252
용동문	서울 구로구 오류2동 현대타운 11동 301호		
유부옥	경기 하남시 초2동 165-1 4통 3반		426-1363
유기철	서울 강남구 일원동 공무원APT 804동 111호	육군참모총장실	576-6202
유영근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3리 747		71-5830
윤종원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4-10	서성국교 교사	333-1260
윤종희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주공APT 507동 309호		423-8796
윤희순	서울 관악구 신림5동 1432-158 14통 7반		886-8395

## 출향인사동정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윤춘기	서울 구로구 시흥5동 장미연립 D동 104호		807-1876
윤경자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대영APT 405호		793-6750
윤창기	서울 중랑구 중화1동 303-48	중랑경찰서 교통계	435-9403
윤경남	서울 강서구 화곡5동 제2주공APT 14동 101호	마포경찰서	696-3310
윤혁기	서울 구로구 시흥5동 220-98 23동 5반		804-5681
윤혜숙	서울 성동구 성수1가동 동아APT 11동 809호		467-5681
윤경용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APT 804동 404호	건우건설(주)	644-4242
유인희	경기 부천시 신곡3동 355-2		655-5468
윤운병	경기 광주군 광죽읍 삼리 410-3		
원정자	경기 안성군 안성읍 옥천리 37-2		73-1379
윤영덕	경기 안성군 안성읍 분산리 475-1		672-8483
원건희	서울 성동구 능동 82-9	한국통신 전화번호부	462-9519
이화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2동 89-50		332-5837
이현우	경기 남양주군 별내면 화정5리 669 화정가든		65-8276
이창수	서울 종로구 수송동 34 6통 1반	명성여고 체육과장	739-4390
이금철	서울 관악구 봉천8동 919-10	건축업	877-6740
이문환	서울 중랑구 연목5동 175-70		432-0088
이경자	경기 부천시 송내동 우성APT 8동 307호		63-0727
이인정	서울 동작구 상도1동 113-5	승실카센터	815-3434
이천우	서울 송파구 거여동 비호APT 3동 308호		400-8149
이부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동 4345		752-1245
이창우	경기 남양주군 별내면 화정5리 699	화성가든	65-8276
이부영	서울 마포구 망원동 377-18		324-3642
이만성	인천시 남구 주안3동 809		82-8993
이의규	서울 성동구 자양3동 469 성호상기 103호		477-5609
이필용	서울 노원구 상계5동 156-177	동원상사	978-9778
이무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APT 17동 503호		574-4123
이문자	경기 구리시 인창동 657-21		63-6257
이정일	서울 중랑구 면목 7동 673-11		496-7763
이석용	서울 서초구 방배동 528-109	중앙대부속여중 교사	583-2561

## 출향인사동정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이승우	경기 용인군 기흥면 영덕리 104-1	대호주유소	8-4200
이영철	서울 노원구 상계7동 주공APT 412동 601호		933-4007
이재인	서울 중랑구 망우3동 523-28		433-8590
이인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18차 337동 50호		533-8276
이광호	서울 도봉구 수유1동 54-18	장수내장탕	980-6389
이동석	서울 동작구 대방동 97-1 전철APT 가동 106호	성남고교 교사	814-7925
이부균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주공APT 359동 507호	한미연합사	534-7444
이영호	서울 관악구 봉천8동 1543-46	삼성통신	887-6493
이근성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12단지 1215동 1301호		935-7993
이수호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5차APT 519동 107호	대한제당	534-1394
이윤모	경기 안산시 고잔동 주공APT 519동 107호		82-8579
이향자	경기 송탄시 신강동 167-4		4-3706
이봉남	서울 서초구 반포1동 미도APT 301동 610호		591-8028
이민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APT 56동 205호		408-7196
이확성	서울 강서구 방화2동 550-1		662-1972
이은덕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일APT 마동 103호		582-1528
이동우	인천 남동구 만수2동 5-426 신동아APT 7동 1105호	한신인쇄	423-8261
이완호	서울 은평구 대조동 79-8	강원은행 서울지점	388-6612
이준일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191-9	한국무역전시장	422-1268
이홍식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6-20 현대빌라 4동 802호		549-2126
이낙규	서울 양천구 목1동 목신시가거APT 713동 903호	대원강입(주)	647-5380
이혜숙	서울 관악구 신림9동 경원연립 5동 202호		878-7360
이춘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95		713-8401
이우병	서울 구로구 구로2동 730-48 26통 2반		863-8186
이정녀	서울 송파구 거여동 219-1		407-2410
이일정	서울 동작구 상동1동 105-65		813-5725
이종수	서울 송파구 풍납1동 201-3 28통 3반		482-6314
이혜진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48-48	신창상역(주)	464-4767
이기호	인천 북구 산곡1동 13-88 16통 4반	대우자동차	526-0953
이황	서울 동작구 봉천7동 1609-22	남성항공해운	335-7337

출향인사동정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이덕성	서울 강서구 염창동 255-1 헤촌맨션타운 차동 203호		
이상우	서울 동대문구 용위동 39-729		
이병학	인천 중구 북성동 1-98(월미도)		
이인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244-65		
이동춘	인천시 남구 간석1동 584-4 6통 4반		
이병희	서울 서초구 방배1동 141-23 11통 4반		582-1534
이호석	서울 동대문구 이문1동 78-3	대한교육보험	842-0919
임기호	충남 논산군 강경읍 홍교리 강경주택 가동	강경읍사무소	745-2252
임복득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3-20		313-3818
임정길	서울 강동구 암사3동 102-45		472-3287
임순옥	서울 성북구 종암동 종암APT 가동 38호		95-3287
임용옥	경기 광명시 철산3동 주공APT 707동 303호		687-2457
임보영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	보라매 청소년회관	841-3288
장석일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95-6		274-0123
장수길	서울 종로구 루상동 13		737-0887
장익준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4가 103-15	(주)장자	922-7913
장금주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APT 7차 112동 140호		575-0625
장영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188-39 16통 3반		94-4403
장선희	인천 북구 산곡1동 87-380 6통 2반		529-3854
장유하	"		93-0687
장진상	서울 관악구 신림8동 강남APT 8동 825호		855-9390
장영수	서울 성동구 능동 131-13 우리머리방	동우산업	458-5131
장영준	서울 동대문구 답신리 270-7 6통 1반		248-1474
장형봉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717 두암시장 2층	일오삼 대표	843-4809
전근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APT 2단지 1동 204호		935-6310
전상열	인천 북구 북평3동 183 18통 3반		526-5794
전광남	경기 여천군 전곡읍 온대3리 6반		32-3305
전창언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95-35	설악개발(주)	842-6611
전봉녀	서울 동작구 상도1동 248-3 17통 4반		
정만수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829-2 33통 4반		964-0665

## 출향인사동정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정진호	서울 중랑구 상봉1동 26-2 3통 7반	태양전기조명	916-1626
정의강	서울 성동구 사근동 199 하이츠APT 101동 603호		295-7607
정택수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153-1 403호		815-5836
정정호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48-8		45-9791
정수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APT 406동 505호		476-8660
정송암	"		"
정필녀	서울 마포구 아현동 684-1 연립 나동 103호		363-9086
정봉암	서울 중구 신당1동 251-80		235-3045
정은자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10-109	문성국교 교사	878-0623
정영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APT 20동 406호		566-5002
정계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APT 8동 105호		847-1256
정기영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207-4	유신한복	423-3498
정장석	서울 도봉구 미아2동 791-543	충남상회	908-2860
정영식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453-1	육군본부	846-5229
정영우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APT 56동 205호		408-7169
정관옥	서울 강동구 하월곡동 90-219		916-9786
정병훈	"		"
정장호	서울 도봉구 미아3동 305-11	건축업	989-3839
정주벽	경기 안산시 선부동 969-6	은하교회 목사	83-4727
정경득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2-11		414-2344
정승수	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 88	강남우신향병원	235-6783
정영순	인천 북구 계산동 857-71 19통 1반		522-8591
정영식	대전 서구 복수동 계동APT 1동 116호		505-1225
정철암	서울 강동구 천호동 34-3	대한교육보협	479-1309
주혜숙	서울 도봉구 쌍문3동 103-136 2통 5반		908-6802
조남호	경기 파주군 파주읍 파주4리		52-4488
조명훈	경기 의왕시 오전동 170-1		53-3538
조춘옥	서울 영등포 대림동 851-64 19통 2반		832-2472
조인현	서울 노원구 월계1동 490-1 태광연립 C동 100호		917-4763
조광연	서울 성동구 금호동 1가 130-18	성동경찰서	232-3956

출향인사동정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조남표	경기 부천시 남구 괴안동 현대APT 라동 302호		62-2739
조근재	경기 안양시 호계3동 848-2 양수APT 나동 201호		54-5356
지추욱	서울 중랑구 목1동 121-53		433-5666
지정주	경기 하남시 덕풍동 365-55		63-4719
지영자	서울 강서구 화곡6동 경서APT 라동 235호		694-7998
지근호	서울 구로구 고척2동 262-6		682-6974
차정욱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APT 703호 1002호	증구청	573-8124
차용기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21	용춘물산	
채진숙	서울 강서구 화곡1동 899-27		690-1336
최광호	서울 성동구 아황십리동 291-11	동광스텐	293-5862
최춘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38-25		512-3834
최순복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72-5	금호그림 증기부	758-1920
최수자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진주APT 11동 609		413-0366
최정교	경기 송탄시 신강동 167-4	건축차재	4-3706
최정숙	서울 동작구 노량진 2동 314-7		815-0572
최영섭	서울 강남구 역삼2동 개나리APT 15동 105호	교통부과장	567-5829
최무영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8-70	성신계기산업사	336-6061
최선규	서울 마포구 합정동 132		393-4521
최수완	서울 양천구 목2동 535-11		647-4349
최익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APT 703동 1402호		557-3311
최경욱	서울 관악구 신림3동 난곡APT 2동 405호		862-3339
최영식	서울 강동구 천호3동 145-23		485-8336
최정식	서울 동대문구 장안3동 443-1 금성연립나동 106호	문교부	245-2970
최종문	서울 강남구 일원동 683-5	고려원	573-5199
최종권	서울 송파구 방이동 115-20 가람빌딩 302호	아산기획	412-9306
최경호	서울 동작구 사당동 190-80	한신공영(주)	584-1293
최이자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5-105		795-8975
최해식	서울 양천구 신정5동 917-7		698-4992
최광수	서울 강서구 방화2동 545-5	한국항공(주)	663-8437
최길자	경기 화성군 남양3리 1612		523-8965

## 출향인사동정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
최필금	서울 중랑구 중화1동 309-57 19통 2반		
최옥순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42-18 22통 5반		
최근복	인천 중구 북성동3가 신일APT 203통 2반		
최두석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280 2통 4반		
최양원	서울 도봉구 창4동 33 1903동 817호		
최문영	서울 강동구 길2동 322-6		483-4916
최근홍	경기 고양군 원당읍 주공APT 121동 110호		64-6423
최찬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65-10	동성섬유	845-2268
한덕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주공APT 906동 601호	과학연구소	474-7591
한복순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주공APT 78동 402호		412-3391
한수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APT 3동 407호		212-0318
한상울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APT 403동 407호		647-0162
한영식	경기 포천군 일동면 입3리 672 독수리관사 3호		31-6118
함명철	서울 강남구 도곡동 역삼 한신APT 4동 1202호	방송사회부장	568-8427
함병주	경기 시흥시 은행동 297 대우APT 나동 106호		
허경구	서울 종로구 계동 135-1	국회의원	753-1939
허태영	서울 성북구 길음3동 1262-147 28통 3반		983-8459
허충구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성호연립 104호	감리교회목사	832-2088
허영철	서울 구로구 구로3동 778-6		857-2758
홍수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시영APT 29동 110호		483-2978
홍창수	서울 구로구 구로3동 778-6	엔지니어링	857-2758
홍상근	경기 안양시 안양1동 647-19	당구장 경영	49-5145
홍승철	경기 안산시 와동 736 효자2차 상가		83-9140
현연옥	서울 강서구 화곡5동 우신APT 18동 302호		602-3251
황제연	서울 중랑구 면목6동 105-13	제일부동산	
황준택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15		512-2516
황호연	서울 양천구 신월4동 540-1 동성연립 102호		
황훈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9-11		533-3886

# '91 인제문화원 사업일지

사업기일	사 업 명	장 소	참석인원
91. 6. 16	단오절 민속놀이경연대회	인제읍노인회관, 남국교	800명
91. 9. 8~10	함강문화제 문화예술 축제행사	문화관, 종합운동장	600명
91. 8~9월	고유민속예술 발굴및 경연	원주시	55명출연
91. 10. 24~25	향토문화유적지 순례	내설악 사적지	25명
91. 2. 1.~28	풍물놀이 강습	문화관	12명
91. 12. 30	문화지 제6집 발간	강원일보사 인쇄	1000부
91. 12. 30	향토유적 및 사적지 발간	"	600부
91. 3. 10월	향토사료 수집	관내일원	6명
연중계속	향토사 연구(소) 사업지원	"	15명
91. 6. 24~9. 30	서예교실 운영	인제문화관	30명
91. 10. 20	향토문화상 시상	"	80명
91. 7. 2	숨다리 합창단 지원	"	50명
91. 10. 20	내고장 문화강좌	인제읍 2층 회의실	100명
91. 6. 24	향토예찬 글짓기 공모	총 혼 답	80명
91. 5. 18	아동미술 사생실기 대회	"	580명
91. 10. 20	효행상 시상	문 화 관	80명

# '92 문화사업 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명	시 기	장 소
향토고유문화 의 보존전승	단오절민속놀이경연대회	6월	인제노인회관, 인제남국교
	구정맞이웃놀이대회	2월	인제노인회관
	합강문화제문화예술축제행사	9월	"
	민속예술발굴	8월	관 내
	관외유적지순례및시범문화원견학	4월	도 내
	향토유적지순례	10월	"
	풍물놀이강습 마을농악기전수	3월 "	문화관 2개마을 지정
향토사료 의 수집보존	문화지제7집발간	12월	1000부
	향토사료집발간	"	600부
	향토사료수집	년중계속	관내일원
	향토사료실운영	"	문화관
지역문화 의 개발활동	향토문화재및관광지사진전시	11월	문화관
	숨다리합창단지원	6월	"
	청소년문화강좌	5월	"
	문화강좌	10월	"
	향토예술글짓기공모	5월	관내학교
	아동미술사생실기대회	6월	충혼탑
V T R 순회상영	년중계속	관내일원	
경로효친사상 선양전개	효행상시상	10월	문화관
지역사회교육	서예교실운영	년중계속	"

# 인 제 문 화 원 임 직 원



원 장 오정진



부원장 조창구



이 사 함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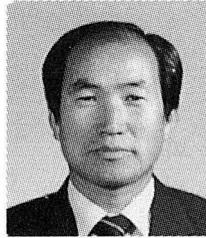
이 사 임광준



이 사 심응섭



이 사 김은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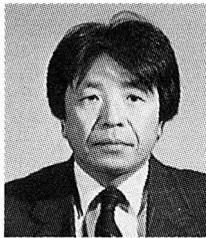
이 사 김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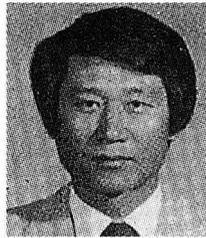
이 사 장정훈



이 사 전광규



이 사 김현래



이 사 박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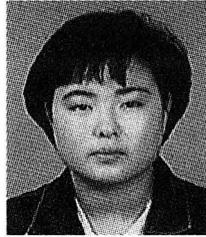
감 사 이창락



감 사 임성기



사무국장 이만철



간 사 김영미

# 인제문화원회원명단

구 분	성 명	비 고	구 분	성 명	비 고
일반회원	황연수		일반회원	이기우	
"	최영운		"	김국련	
"	변일선		특별회원	이상각	
"	최영환		"	송병선	
"	임복수		"	송박병석	
"	이승호		"	김성호	
"	강석천		"	남정우	
"	한기복		"	한구현	
"	엄문섭		"	이규영	
"	이재화		"	이운철	
"	심재필		"	이황민	
"	방효정		"	김실권	
"	최항규		"	김규중	
"	심재복		"	문정주	
"	김종국		"	장정섭	
"	홍종표		"	이상주	
"	이제균		"	한성국	
"	김철주		"	김기호	
"	김원현		"	김경호	
"	양승호		"	강미영	
"	변완기		"	강천미	
"	최복진		"	홍혜경	
"	홍방래		"	김정순	
"	한상원		"	정정숙	
"	심상인		"	양일순	
"	심병관		"	김명희	
"	정인식		"	이명옥	
"	장석만		"		

## 편 집 후 기

- ◎향토 문화의 기록보존과 애향운동으로 널리 나누어 보는 「인제문화」지가 제6집으로 나이를 더해가며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향토문화의 주체성을 내세우고 명실상부한 대변지로 꾸며 보고자 애를 태우고 정성의 구원을 기원하여 보았지만 그리 쉽지는 않군요.
- ◎년년히 편집할때마다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원고의 빈약함과 자료의 부족, 원고의 정리와 편집의 기술등 어려움을 자책해 봅니다.
- ◎본지 발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귀한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일이 전개될 수 있도록 계속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



◆ 表紙說明 ◆

인제군 북면 용대리 12선  
녀탕 계곡에 있는 복숭아탕

「麟蹄文化」는 郡內 各 기관, 단체, 학교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麟蹄文化」는 발행부수가 한정되어 있사와 회관이나 문고, 도서관, 자료실 등에 비치해 여러분들이 돌려 볼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麟蹄文化 第六輯

---

발행인 : 오 정 진  
편집인 : 이 만 철  
발행처 : 인 제 문 화 원  
전화 : (0365) 461-6678  
인쇄처 : 강원일보사출판국  
인쇄 : 1991. 12. 20  
발행 : 1991. 12. 30

---

〈비배품〉

이 책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발간된 책으로 인제군민 모두의 문화기관지입니다.